

2023 01  
Vol. 191

12. 27  
+ 1. 1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1



2



3



## 이달의 아티스트



# 송주원

안무가

—— 송주원은 안무가이자 댄스필름 감독이다.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변형되고 사라지는 도시 속 공간에 몸짓으로 말을 걸고 질문하기를 반복한다. 그리고 그 공간에 투영되는 신체가 말하는 삶에 대한 질문을 특정 장소에 대한 리서치와 퍼포먼스, 전시, 상영의 방식으로 구현한다. 전문 무용수, 비~~非~~전문 무용수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무브먼트 그룹 ‘일일댄스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작업으로 열다섯 편의 <풍정.각 風情.刻 시리즈>(2014~2022) <휘이잉hwi-ing><이십삼각삼각> 외 다수가 있다.

도시공간 무용 프로젝트 <풍정.각 風情.刻 시리즈>는 ‘스크린’과 결합한 ‘안무적’ 실험을 수년간 지속해 오고 있다. 2013년 겨울, 기획 단계부터 지금까지 10년의 여정은 도시의 장소에서 포착한 삶의 흔적과 질문을 담은 라이브 공연과 영상 작업으로 이어졌다. 보광동·한남동에 뿌리를 둔 열다섯 번째 댄스필름 <휘이잉hwi-i-ing>은 구멍난 기도와 바람이 흐르는 ‘휘이잉 마을’ 이야기로서 그동안 진행한 안무와 매체, 카메라, 스크린, 블랙박스를 중첩하는 방식의 공연이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사라져 가는 마을에서 만나는 신체와 그것을

바라보는 신체, 또 그곳을 지나치거나 머무른 신체들, 내부이자 외부인 삶의 경계와 바람wind/wish을 기록하고 그사이를 관통하는 ‘안녕’을 무대로 소환했다.

<휘이잉>은 다양한 스크린을 통해 무대화된다.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아프리카춤, 비전문 퍼포머의 몸의 언어, 뮤지션의 라이브 연주, 장소의 사물과 바람이 된 관객 등이 휘이잉 마을에서 연결된다. 무대의 다층적 상징, 스크린, 신체의 무브먼트를 뭉타주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시공간을 안무하는 영상 무대와 라이브 무대를 퍼포밍했다.

안무에는 여러 층위가 있는데 이 작업은 코레오그래피choreography(안무)와 시네마토그래피cinematography(피사체를 촬영해 영화 이미지를 만드는 것)를 엮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보광동·한남동이라는 장소의 지오그래피geography(지리·지형도)가 함께 안무된다. 코레오그래피-시네마토그래피-지오그래피가 교차하는 지점을 기반으로 신체의 언어가 마을의 오늘을 ‘그래피graphy(기록하다)’는 의미의 접두사’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장소에서 만나게 된 질문을 몸으로 읽고 쓰는 것, 카메라로 읽고 쓰는 것, 블랙박스에서 만나는 모두와 읽고 쓰는 것의 ‘중첩중첩중첩’ 작업이다.

# Contents

2023 01 Vol. 191

## 커버스토리

이달의 아티스트 송주원



00 —— 01

## 테마 토크

반려 문화생활

### 칼럼

06 —— 07

트렌드 관점에서 바라본 반려 생활

### 리포트

08 —— 11

문화예술로 보는 반려 생활

### 에세이

12 —— 13

반려 그림 찾는 법

### 스낵

14 —— 15

반려 공예

## 이슈+서울

### 이슈 1

16 —— 17

서울아트책보고

### 이슈 2

18 —— 21

서커스 점핑업 Circus Jumping UP

### 이슈 3

22 —— 23

2022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연구분야 성과 공유회

##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연재인, 오니트(주)(장보영)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디자인 오니트(주)(장가은, 신제현)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124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http://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http://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 트렌드+서울

문화인 24 —— 29

첼리스트 홍진호

정연석의 서울 산책 30 —— 33

다동과 무교동

공감 1 34 —— 35

전시 <일시적 개입>과 <국내여행 GRAND TOUR KOREA>

공감 2 36 —— 37

<2023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와 연극 <히어HIR>

서울 찰나 38 —— 39

## 이야기+서울

김송희의 썰(說) 40 —— 41

'다나카'와 '퐁자'

최재훈의 씨니컬 42 —— 43

Cine\_Col: Cinema Column

이재은, 임지선 감독의 <성적표의 김민영>

윤종강의 국악 실록 44 —— 45

장용수와 양소운

웹진 [비유]

46 —— 47

연结돼 있다는 믿음으로

웹진 [연극in]

48 —— 49

국립극장 기획 무장애 공연 <틴에이지 딕>

웹진 [총:in]

50 —— 51

김재리, 문지윤, 황수현과의 대화

1월의 서울문화매뉴얼

52 —— 58

편집후기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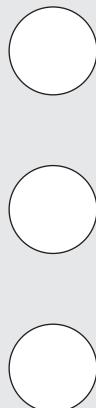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더불어 사는 기쁨, 반려 문화생활

개와 고양이가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 된 이후  
이제 반려의 대상은 동물, 식물을 넘어  
가전제품, 인형, 로봇, 예술작품으로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다.  
주기만 하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고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으면서  
반려하는 삶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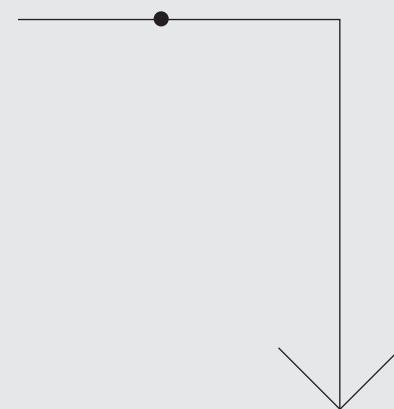


Handicraft





Drawing



Gard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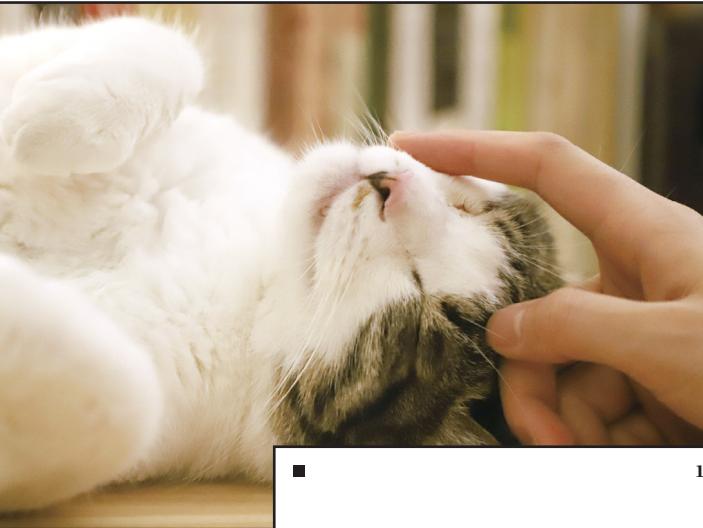


• • •

# 반려는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다

트렌드 관점에서 바라본 반려 생활

글 박현영.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소장, ‘데이터’라는 숫자를 ‘이야기’라는 글로 쓰는 것을 좋아한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트렌드 노트』 시리즈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다. | 사진 제공 pixels.com



1



2

1 반려묘는 반려견과 함께 가장 대중화된 반려 대상 중 하나다.

2 현대인의 일상에 힘과 위로를 주는 반려 식물

미래의 핵심은 ‘혼자 산다’와 ‘오래 산다’로 요약된다. 지금은 혼자이지만 언젠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의 선택지는 다르다. 후자의 경우 멀리 가거나 오래 걸려도 전세를 살거나 집을 매매하는 것을 고려한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신중하게 고른다. 예전에는 가족이 살 것으로 예상했던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구매를 고려한다. 큰 침대 사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 매트리스에 투자한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반려’의 대상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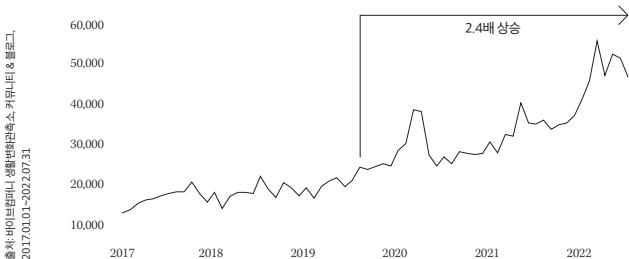
- 
- 
- 
-



## 점점 상승하는 ‘반려’

빅데이터 키워드 추이에서 ‘반려’의 상승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포착됐다. 2019년 1월 발간된 〈생활변화관측지〉 1호에 ‘반려 키워드 중 가장 상승폭이 큰 것은 반려 식물’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3년이 지났고 그사이 코로나19를 겪었다. 현재 반려 식물은 일반화 됐고, 식물 재배 시장도 커졌다. 2023년 이 시점에서 다시 반려를 주목하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 반려는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다. 반려에 대한 언급은 코로나19 전에도 상승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더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고 있고, 상승폭은 점점 커진다. 2019년 7월 대비해 2022년 7월, ‘반려’라는 키워드는 2.4배 증가했고, 월평균 4만 건 넘게 발현됐다. 월평균 4만 건은 소셜 빅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브랜드인 ‘스타벅스’의 월평균 언급량 수준이다.



둘째, 반려의 대상이 다양해졌다. 2019년이나 지금이나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강아지와 고양이, 그중에서도 ‘강아지’로 변함이 없지만, 반려 대상의 폭은 점차 넓어진다. 동물로는 파충류·물고기로 확장됐고, 반려 식물에 이어 반려 기기까지 반려의 대상에 합류했다.

셋째,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반려의 대상은 ‘기기’다. 반려 기기는 반려 식물처럼 언급량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현재 상승폭이 가장 큰 반려 대상이다. 식기세척기나 로봇 청소기처럼 내가 없을 때 묵묵히 내가 할 일을 해주는 가전을 반려 가전이라 한다. ‘정말 고마워’하는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다. 늘 곁에 두는 디지털기기도 반려 대상의 반열에 들었다. 에어팟이나 아이패드를 보면서 ‘나는 이 제품이 없으면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 항상 같이 붙어 있어, 이것이 반려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로봇 중에서는 인공지능 로봇보다 많이 등장하는 것이 서빙 로봇, 반려 로봇이다. 현대식 쇼핑센터나 카페에서 만날 수 있는 서빙 로봇은 대단히 똑똑한 로봇은 아니다. 로봇 청소기처럼 다른 사물

과 부딪히지 않고 스스로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으로, 청소를 하는 대신 내가 주문한 음료를 가져다준다. 사람들은 천천히 다가오고 천천히 멀어지는 서빙 로봇을 인내심을 갖고 바라본다. 무생물에 대해 반려성을 느끼는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다. 일례로 인형이 있지 않은가? 가게에서 구입하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똑같은 인형이지만 내가 그 인형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부를 때, 그 인형이 살아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 반려의 조건은 무엇일까?

반려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고유한 이름’이다. 인공지능 스피커 K사의 ‘지니’가 있고, S사의 ‘누구’가 있다. 누가 많이 불렸을까? 당연히 ‘지니’가 많이 불렸다. ‘지니야’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워도 ‘누구야’는 이름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반려의 두 번째 조건은 ‘감정’이다. 묵묵히 일하는 우렁각시를 끓은 가전처럼 아주 고맙다든지, 인형이나 강아지처럼 아주 귀엽다든지, 인간이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반려 대상이 똑똑하다고 인정받거나 존경받을 필요는 없다.

반려의 세 번째 조건은 ‘반응’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특출한 자료를 찾아오거나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할 필요는 없다. 그것보다는 인간의 말에 대꾸를 해야 한다. 못 알아들었을 경우 “못 알아들었습니다”라고 눈을 깜빡이며 밀하는 것이 반려성을 획득하는데 유리한 조건이다.

반려의 네 번째 조건은 간과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 바로 ‘성장’이다. 반려 식물에서 사람들이 가장 환호하는 순간은 싹이 틔울 때다. 너무 완벽해서 말이 필요 없는 기기가 아니라 1.0, 2.0으로 버전업을 할 때, 그리고 그 버전업을 소비자가 느낄 수 있으며 이왕이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변화할 때 소비자는 역사를 같이했다고 느낀다. 게임의 업그레이드 같은 것이다.

냉장고가 반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제품이, 우리 브랜드가 반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혼자 오래 살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반려는 필수다. 그리고 더 강화될 것이다. 모든 제품과 브랜드가 어떤 면에서 반려성을 가져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이것은 내 것, ‘my own’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어야 한다.

# 당신의 반려OO은?

문화예술로 보는 반려 생활

글 장보영\_객원 기자

사진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소다미술관, 강아지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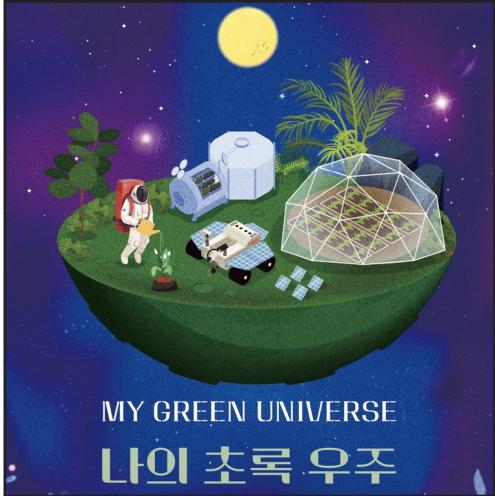
- 2 1 2020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
- 2 강아지숲, 국내 1호인 동시에 최대 규모 반려견 테마파크다.
- 3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진행하는 특별전 <나의 초록 우주>



‘반려’라는 말이 더는 낯설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생을 함께할 반려 대상은 어느덧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생물, 나아가 사물로까지 옮겨가는 추세다. 사람 ‘자者’를 써 ‘반려자’로 부르던 인생의 파트너가 동물, 식물 같은 생명체로 대체되는 것을 넘어 그림, 음악, 물건, 공간, 음식, 운동, 취미활동 등 자신의 기호와 취향이 한껏 반영된 모든 유무형의 객체로 확장된 것이다.



3



### 하나의 문화 키워드로 자리 잡은 반려견

이른바 ‘반려 생활’이 일종의 대세가 된 이유는 기후 위기로 인해 동물, 식물 등의 생태계를 대하는 대중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한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짙어진 일상의 농도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대의 흐름과 요청을 반영하기 마련인 문화예술의 행보는 어떠할까? 과연 반려 생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드러내듯 ‘반려’를 주제로 하는 전시, 공연, 워크숍, 책, 공간 등도 덩달아 늘고 있다.

2020년 하반기 국립현대미술관이 진행한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은 대표적 반려동물인 ‘개’가 미술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신호탄 같은 전시였다. ‘반려견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전시’를 표방한 이 전시는 일반적으로 ‘인간’을 위해 운영되는 대표 공공장소인 ‘미술관’에 공식적으로 ‘개’를 초대하면서 현대사회에서 반려가 차지하는 의미와 비인간<sup>non-human</sup>에 대한 인간의 입장을 돌아보고 미술관이 담보하는 공공성과 개방성의 범위 등을 질문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 전시는 인간과 개의 복합적 관계를 보여주는 28점의 미술 작품 뿐만 아니라 건축, 운영, 상품 개발까지도 ‘개를 위한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충실했다. 미술관 관람객인 개의 특성(지각, 인

식, 습성, 감정 등)을 존중하기 위해 수의사에게 자문했고, 반려견과 반려인, 반려견을 동반하지 않은 일반 관람객의 매끄러운 관람 동선을 위해 전문 건축가와 조경가가 참여했다.

‘반려견’을 주제로 한 또 다른 전시로는 2022년 6월 28일에서 10월 23일까지 열린 <반려풍속(伴侶風俗)>이 있다. 이 전시는 국내 최대 규모 반려견 테마파크인 ‘강아지숲’에서 진행됐다.

<반려풍속>은 반려견을 주제로 하는 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강아지숲 ‘아트 프로젝트’의 다섯 번째 전시로 열렸으며, 수년간 여러 반려동물의 아름다움을 한국화로 표현해 온 곽수연 작가의 작품 24점을 소개했다. 조선 후기의 평범한 일상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반려견은 인간처럼 안경을 쓴 채 책을 읽고 바둑을 두고 담배를 피우고 차를 마시는데 이는 반려견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열어준다.

### 식물, 그림, 로봇… 각양각색 반려 생활

‘반려’를 주제로 하는 전시는 동물에서 그치지 않고 ‘식물’로까지 이어진다. 그중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2022년 11월 19일에서 2023년 3월 26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중앙홀에서 진행하는 기획전시 <공존>을 눈여겨볼 만하다. ‘반려 식물과 반려동물의 동행’이라는 부제 아래 열리는 이 전시는 정원 문화 및 반려 식물 대중화를 목표로 반려 식물과 반려동물의 공존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백합은 독보적 아름다움을 지닌 꽃이지만 독성 물질이 있어 일부 반려동물에게는 설사, 탈수, 식욕결핍 등을 야기하는 치명적 식물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존>은 대표적 독성 반려 식물 15종과 안전 반려 식물 15종을 소개하고, 이들 식물과 반려견·반려묘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D 그래피디자인을 적용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전시장, 애니메이션존, 포토존 등도 전시의 재미를 더한다.

반려인을 위한 아주 특별한 전시는 동물, 식물을 벗어나 ‘그림’으로 나아간다. 2022년 10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6일까지 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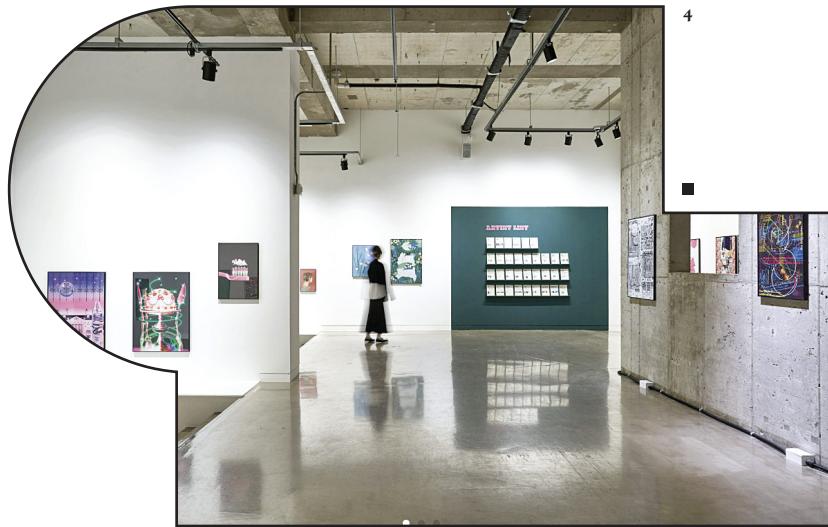
4 화성 소다미술관에서 2023년 2월 26일까지 전시 <WE ARE COLLECTORS!: 나의 반려 그림>을 연다.

5 입장권에 마음에 드는 작품의 번호를 기재하고 해당 작품의 포스터를 무료로 증정받는다.

6 반려 생활을 하는 발달장애인 4명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집 『너와 함께 반짝반짝』

7 반려 대상에 대한 상상력을 넓혀주는 산문집 『반려공구』

8 강아지와의 일상을 담은 그림책 『키니 일기』



소다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 <WE ARE COLLECTORS!: 나의 반려 그림>은 우리 삶에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반려동물과 반려 식물처럼 ‘그림’도 엄연한 반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흥미로운 점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전시가 작품 소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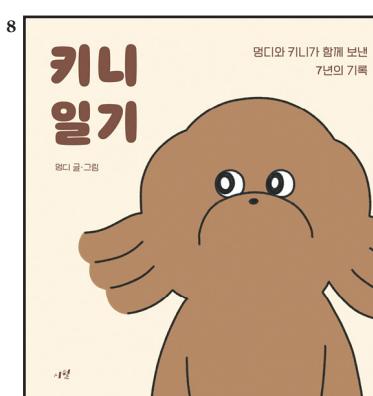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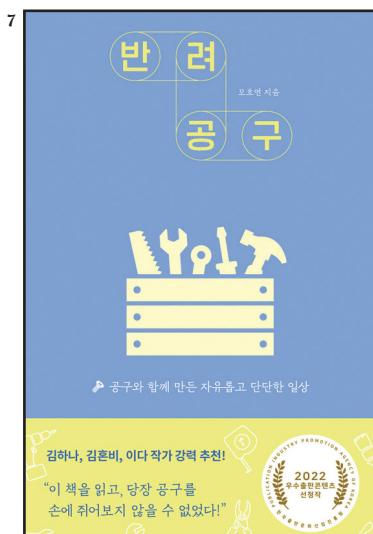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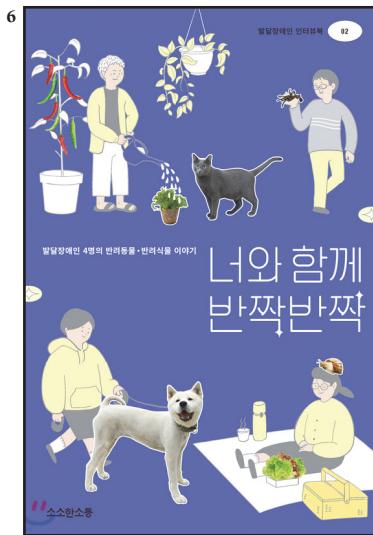
이 전시는 회화, 애니메이션, 그래픽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작업 세계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신진 작가 33명의 작품을 ‘아트 포스터’ 형태로 소개한다. 관람객은 입장권에 마음에 드는 작품의 번호를 기재하고 해당 작품의 포스터를 무료로 증정받는다. 이로써 관람객은 아트 컬렉팅을 체험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좋아하는 작품을 곁에 두고 즐길 수 있다.

한편 지난 11월 21일에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어르신과 반려로봇이 함께하는 패션쇼>를 열었다. 패션쇼에서 반려로봇 ‘효돌’과 함께 런웨이를 펼친 어르신들은 1인 가구인 홀몸노인(배우자나 자녀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었다.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어르신 325명에게 반려로봇을 보급해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인스타툰, 책 등 반려 생활 담은 채널도 다양해

문화예술 속 반려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곳은 전시장만이 아니다. 가까이에 두고 기간에 상관없이 원할 때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는 ‘책’을 통해서도 반려 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 반려 대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개와 고양이는 현재 관련 서적이 상당수 출



편됐다. 도서 검색대에서 ‘반려견’, ‘반려묘’를 입력하면 반려동물 양육/훈련 가이드, 반려동물 응급처치 매뉴얼, 반려동물 심리상담서, 반려동물 요리책, 반려동물 컬러링북, 반려동물 애세이 등을 찾을 수 있다.

그중 강아지와의 일상을 담은 그림책《키니 일기》는 인스타툰(‘인스타그램’과 ‘웹툰’의 합성어)에서 출발해 책으로 출간된 경우다. ‘멍디와 키니가 함께 보낸 7년의 기록’이라는 부제를 단《키니 일기》의 저자는 12만 팔로어의 동명 인스타그램 채널 ‘키니 일기’를 운영하는 멍디(@meongdi)다. 그림을 전공한 멍디는 자신이 키우는 갈색 푸들 ‘키니’와의 추억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 2018년부터 인스타그램에 키니와의 일상을 그림으로 그려 연재해 왔다. 반려 식물이 지금의 인기를 얻게 된 계기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재택근무가 확산되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테리어와 살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식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 것이다. 역시 ‘반려 식물’ 관련 도서를 검색하면 반려 식물도감, 흙가드닝 안내서, 반려 식물 인테리어 가이드, 반려 식물 애세이 등을 찾을 수 있다.

반려 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책으로는《너와 함께 반짝반짝》이 있다. 개, 고양이, 금붕어, 달팽이, 타란툴라, 각종 식물과 함께 살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발달장애인 4명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집으로 반려 생활을 통한 교류의 기쁨, 치유의 행복, 정서적 안정을 확인할 수 있는 양서良書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생명을 돌보는 일에는 장애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저 생명을 잘 돌보는 사람과 아직 서툰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마지막으로 반려 대상에 대한 범주를 넓혀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한다. 바로《반려공구》다. 저자 모호연은 망치, 펜치, 드라이버, 톱 등 21가지 공구를 소개하며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때로는 웃픈 실패를 목격하며, 일상을 함께 돌봐온 든든한 동료들’이라고 말한다. 곁에서 묵묵히 나의 도전과 실패를 바라봐 주고, 용기와 위로를 주면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 2023년에는 반려 생활에 도전해 보는 것 어떨까?

# 내 인생의 ‘반려 그림’은 어디에 있을까?

반려 그림 찾는 법

글사진 구나윤\_Graphite on Pink(GOP) 디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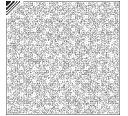
1



2

- 1 나에게 소중한 단 하나의 그림을 소유한 사람도 ‘컬렉터’라고 부를 수 있다.
- 2 반려 그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예술적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다.
- 3 김수민, 안숙의 2인전

“백발의 할머니가 돼서도 이 그림 보며 아침마다 커피 마실래요.” 한 컬렉터가 SNS에 쓴 글이다. 이런 그림이 ‘반려 그림’이다. 삶의 찬란한 일상을 함께하고 싶은 작품. 이런 작품과 함께라면 가격이 오르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시세차익을 남기는 재판매의 순간을 노려보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요즘 미술시장의 뜨거운 활기와 투자 열풍을 보면 여러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과연 ‘컬렉터’는 어떤 이들을 지칭하며 ‘컬렉팅’의 참 의미는 어디에 둬야 하는가? 투자를 목적으로 작품을 소장하는 것은 현명한 결정일까? 예술품을 소장하는 것은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될 만한 경험일까? 이런 궁금증을 하나씩 짚어보자.



## 나도 ‘컬렉터’가 될 수 있을까?

‘컬렉터’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컬렉터’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고, 미술계 안에서도 그 개념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컬렉터는 소수의 특권층을 의미하거나 고가의 작품을 소장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다. 나에게 소중한 단 하나의 그림을 소유한 사람도 컬렉터라고 할 수 있다. 미술품을 소장하고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이다. 컬렉터가 직업은 아니지만 해외 컬렉터의 경우에는 ‘컬렉터’라고 적은 개인 명함을 만들어 자신만의 컬렉션의 있음을 널리 공유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살아갈 반려 그림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요즘은 다양한 온라인 미술 플랫폼과 예술가의 SNS 계정이 많아 손쉽게 다양한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인상적인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오프라인 전시를 찾거나 갤러리 또는 미술관을 방문하면 된다. 처음에는 갤러리나 미술관을 들어가는 일이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몇 차례 방문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반려 그림을 만나기 위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오랜 세월을 함께할 반려 그림을 만나려면 많은 작품을 접하고, 작품의 창작자인 작가의 철학을 탐색하며, 나의 예술적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먼저다. 미술의 역사와 작가의 작업 세계, 작품을 해석한 비평가의 글이 담긴 다양한 미술 서적을 접하는 일도 중요하다.

## 나의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는 작품

미술품은 작가의 혼과 철학을 담고 태어나기에 소장자에게 단순히 시각적 즐거움을 넘어 깊은 사유와 내면의 만족감, 때로는 위로를 건네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은 꼭 원화 페인팅을 소장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작가의 손맛이 느껴지는 드로잉 작품이나 아트 포스터, 판화, 사진, 조각, 도자기 등 작은 소품을 집이나 사무실 공간에 두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반려동물이나 반려 식물과 교감하듯이 작품과 다양한 감정을 교류하게 된다. 요즘 유행하는 NFT 작품은 실제 생활공간이 아닌 온라인의 메타버스 안 가상공간에만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디지털 작품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화



면 또는 모니터 등에 띄워 영상으로 즐기기도 한다. 또한 요즘은 예술 애호가가 모여 함께 미술 강의도 듣고 와인을 마시며 토론하는 커뮤니티 활동도 늘고 있어 미술품을 소장한 이웃과 각자의 반려 그림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많다.

반려 그림의 경우 나의 개성을 드러내거나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소장하기를 추천한다. 부부 또는 가족의 컬렉션은 ‘기념’하기에 좋다. 이를테면 결혼기념일에 소장한 작품 또는 첫아이가 태어난 기념으로 소장한 작품 등은 세월이 가며 가족에게 더 큰 의미로 와닿는다. 반려 그림이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갤러리스트나 경매 전문가가 추천하는 작품도 좋지만 오래 곁에 둬도 질리지 않고 더 가치가 생기는 작품이란 나에게 ‘특별한 감성’을 일으키는 작품이다.

최근 ‘아트테크’라는 용어가 유행하며 미술품 투자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작품이 지금은 얼마나 올랐고, 어느 작품을 더 일찍 구매하는 기회를 놓쳐서 억울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미술시장의 수많은 작품 중 큰 수익을 남기며 재판매할 수 있는 작품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판매자가 나중에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강조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미술 작품은 환금성을 따질 수 없다.

부디 이 글을 읽은 모든 이가 반려 그림을 만나는 일에 투자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단 하나의 인생 작품을 만나 함께 생활하며 누리는 기쁨을 깨닫고, 그림을 보며 상상력과 함께 예술가의 세계를 통해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내 삶에 들여놓는 작은 행복

### 반려 공예

다양한 예술 장르 중 ‘공예’는 특히 구매와 소유가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반려템’으로 들이기 제격이다. 아직 나만의 반려 예술작품을 찾지 못했다면 작은 오브제부터 내 공간에 들여보는 건 어떨까? 신당창작아케이드를 거쳐 간 입주작가가 선보이는 반려 공예를 소개한다.

**작품 문의**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 (02-2232-8833)



### 박진선 〈Still Life Incense holder〉

일상적 장면에서 얻을 수 있는 감정과 사물에 대한 관계성을 흙으로 빛어낸 인센스입니다. 부드러운 곡률이 일상 공간에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made of** 도자, 사이즈 상이  
**price** 30,000원  
**contact** jinseon919@naver.com



### 박선우 〈Slab bowl〉

묽은 흙을 쌓아 판을 제작해 만든 리빙 오브제입니다. 식기나 장식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푸른색 계열의 포인트 색상이 적용돼 생활공간에 생기를 더합니다.

**made of** 도자(자기) 170×170×45mm  
**price** 75,000원  
**instagram** @fprint\_



### 조수정 〈풀어주는 궁궐, 보드라운 뜰〉

한국의 건축 궁궐 안, 자연의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뜰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오려는 모빌 시리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히 빛나는 자연을 품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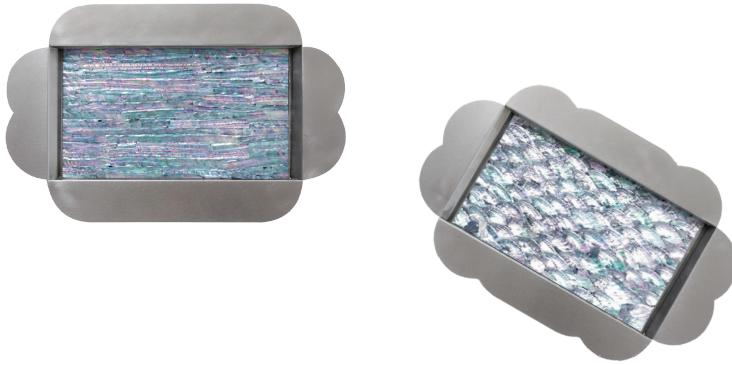
**made of** 황동, 27×27×65cm  
**price** 297,000원  
**instagram** @jo\_soojeong



### 김기드온, 윤경현 〈점·선·면 칠리〉

두 작가가 주로 사용하는 선과 면의 형태를 조화롭게 구성해 균형감이 우수한 칠리입니다. 열전도율이 높은 스테인리스스틸을 사용해 장시간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made of** 스테인리스스틸·철·황동  
파우더코팅, 40×40×20cm  
**price** 700,000원  
**instagram** @kimgideon\_ @kyoungyun.work



### 전남주 〈나:전 시리즈〉

전통적 구름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금속 프레임 안에 빛의  
산란을 유도할 수 있는 자개 장식을 더해 제작한 트레이입니다. 벽  
오브제로 사용하면 빛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  
기기도 사용 가능합니다.

**made of** 금속·레진, 355×230×15mm

**price** 220,000원

**contact** monchatking@naver.com



### 양요셉 〈boundary series\_light001〉

선과 면, 면과 입체 그리고 수직과 수평 등의 대비되는 시각  
요소를 활용해 만든 조명 작품입니다. 철판의 물성을 드러  
내기 위해 최소한의 판 가공과 용접 과정을 거쳐 면과 입체  
를 넘나드는 육면체를 구성했습니다.

**made of** 스테인리스스틸, 200×175×1000mm

**price** 1,500,000원

**instagram** @yangjoseph\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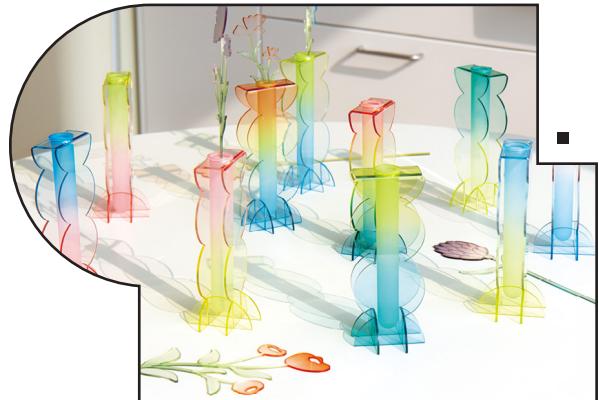


### 조에린 〈Woven Window - Flying Carpet 01〉

전통 누비의 입체적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패치워크 방식으로 제  
작한 러그입니다. 작가가 긴 시간 베틀로 한 올씩 엮어낸 태피스트  
리가 당신의 공간에 따스한 온기를 선사합니다.

**made of** 섬유, 850×1920mm

**price** 1,350,000원



### 스튜디오리포소 〈rounded SUMMER vase series〉

바다, 아이스크림, 여행, 수영 등 많은 사람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 계  
절 여름의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청량한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화병입니  
다. 올겨울, 생기 넘치는 화병으로 추위를 이겨내는 것은 어떨까요?

**made of** 아크릴에 염색, 65×30×165mm

**price** 46,000원

**contact** studio-riposo.com/shop



## 서울의 새로운 문화 중심

### 서울아트책보고

— 과거 ‘랜드마크’가 의미한 것은 탐험가가 어떤 도시를 방문한 뒤 다시 그곳을 찾아가기 위해 기억해둘 만한 상징물 내지 건물 등에 표지를 남긴 행위에서 유래한다. 교통이 발달하고 다른 도시로 떠나는 여행이 더는 탐험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게 된 현대에 들어서는 도시마다 그곳의 개성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랜드마크를 만들고 있다. 이는 물론 관광 홍보의 목적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 도시가 어떤 가치관을 품고 있는지 보여주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랜드마크를 떠올리며 그 도시의 인상을 기억에 새긴다. 파리의 에펠탑, 개선문, 런던의 타워 브리지, 뉴욕 리버티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등은 모두 세계적 도시의 명성에 어울리는 랜드마크다.

### 국내 최초 아트북 기반의 공공 복합문화공간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하면 흔히 남대문, 남산서울타워, 한강, 63빌딩 등을 떠올린다. 그리고 사실상 이는 6·25전쟁 이후 전통의 도시 위에 산업 발전을 이루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였다. 밀레니엄 시대 이후 이제 서울은 세계인들에게 선보일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해졌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문화예술 중심 감성도시, 서울’이라는 주제를 목표로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었다. 이 사업의 결과로 지난 2019년 송파구에 ‘서울책보고’가 문을 열고 시민과 소통을 시작했다. 필자는 ‘서울책보고’와 ‘서울아트책보고’의 기획 단계부터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행운을 누렸다.

현 책방과 문화공간이 합쳐진 ‘서울책보고’는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 시민 호응은 뜨거웠고, 이에 힘입어



서울시는 두 번째 책보고를 기획했다. ‘서울책보고’가 서울의 동쪽에 있기에 다음 책보고의 위치는 서쪽에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2022년, 시민 의견을 수렴해 고척스카이돔 야구장 지하에 ‘서울아트책보고’가 들어서게 됐다.

‘서울아트책보고’는 국내 최초 아트북 기반의 공공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름처럼 그림책, 팝업북, 사진집 등 예술 분야의 책을 총망라하는 서울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2022년 11월부터 임시 운영 기간을 거친 ‘서울아트책보고’는 12월 14일 공식 개관식을 진행했다.

첫 번째 책보고가 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현책방을 테마로 했다면, 두 번째 책보고인 ‘서울아트책보고’는 시민이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아트책보고’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전체를 몇 구역으로 나눈 독특한 공간 쓰임을 눈여겨봐야 한다.

#### 서점, 북카페, 갤러리, 열람실, 체험존 등

#### 아트북과 연계한 다양한 공간

입구에 들어서면 우선 안내 데스크가 보이고 그 뒤로 ‘중정 광장’이 있다. 광장 오른쪽은 아트북 전문 서점과 북카페가 있는 ‘열린보고’다. 열린보고와 붙어 있는 ‘즐겨보고’는 아트북을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는 체험존이다. 서점에 가면 훠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개 아트북을 비닐 등으로 싸놓는데 여기서는 마음껏 책장을 넘기며 살펴볼 수 있다. 광장과 접해 있는 ‘아트보고’는 갤러리이고, 그 옆 ‘자료보고’는 아트북 도서관 열람실이다. 이곳에서는 그림책부터 예술 관련 전문 도서까지 1만 5천여 권의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 ‘해보고’는 시민이 직접 아트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워크숍 공간으로 운영한다.

이곳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개관 특별전시 프로그램인 강애란 작가의 〈Luminous Art Book Project: 그 찬란함의 기록〉과 전 세계의 아름다운 팝업북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시



1 개관 특별 전시 <그 찬란함의 기록>

2 고척스카이돔 지하에 위치한 서울아트책보고 입구

3 서울엄마아빠 VIP존

〈The Magic: 팝업북의 세계〉를 관람할 것을 추천한다. 전시는 2023년 2월 19일까지 이어진다. 그 외에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으니 참여하려면 ‘서울아트책보고’ 홈페이지 [artbookbogo.kr](http://artbookbogo.kr)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주제로 ‘서울엄마아빠 VIP존’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1호 공간이 ‘서울아트책보고’에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는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구연동화를 비롯해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을 계획 중이라 시민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서울아트책보고’는 특별한 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문을 연다. 매주 월요일과 새해 첫날, 그리고 설날 및 추석 연휴에는 휴관한다.

글 사진 윤성근\_이상한나라의현책방 대표, 에세이스트



#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힘: 국내 유일의 컨템퍼러리 서커스 교육을 만나다

서커스 점핑업 Circus Jumping UP

## 낯선 예술 생태계의 중심에 서다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8-2에 위치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는 옛 구의취수장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물탱크와 펌프가 곳곳에 남아 있다. 2011년 한강물을 길어 올리던 구의취수장의 운영이 중단된 이후, 오랜 기간 여러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거리예술’과 ‘서커스’라는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2015년 개관했다. 산업시설에서 문화공간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파란색 물탱크로 상징화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서울의 가장 외곽에서 다소 낯선 예술 생태계의 거점 공간으로 우뚝 섰다.



## 끌어올리고 Pumping 도약하는 Jumping 즐거운 교육 Playground

우리의 추억 속 서커스는 화려한 조명 아래 음악과 함께 여러 곡예사가 등장해 아슬아슬한 공중제비를 돌고, 인간 탑을 쌓고, 여러 개의 공을 던지고 받는 장면이 일반적일 것이다. 컨템퍼러리 서커스는 이러한 전통적 서커스 기예에예술가의 고민과 상상력을 더해 창의적 방법으로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는 예술 장르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개관 이래 거리예술과 컨템퍼러리 서커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컨템퍼러리 서커스 장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인 <서커스 펌핑업>은 공모를 통해 선발된 소수의 서커스 유망 예술가에게 약 6개월간의 집중 교육과 역량 강화 기회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내외 서커스 전문가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컨템퍼러리 서커스 이론이나 여러 기예 교육 및 창작 실험 등을 진행하는 단기 워크숍<서커스 점핑업>, 놀이와 서커스를 결합해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에게 흥미로운 서커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서커스 예술놀이터>가 있다.

## 관심과 지원, 교류와 네트워크의 장

국내에는 컨템퍼러리 서커스로 창작 영역을 확장하길 희망해 이를 배우고자 하는 예술가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전문 교육기관의 부재로 체계화된 서커스 교육과정을 찾아보기 힘든 국내 환경 때문에 주로 유튜브 등의 영상을 참고하며 기량을 발전시킨다. 하지만 신체를 사용하는 서커스 기예의 특성상 이런 교육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고 다소 위험하기까지 하다.

2022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11명의 국내외 예술가와 함께 총 7개의 <서커스 점핑업> 워크숍을 기획해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문화원’ ‘주한캐백정부대표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국내외 많은 관련 기관과 단체가 국내 컨템퍼러리 서커스 분야의 발전을 위해 <서커스 점핑업>을 적·간접적으로 지원했고, 이로써 더 많은 국내외 서커스 예술



1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야외마당에 놓여 있는 옛 구의취수장의 물탱크

2 캐나다 단체 Le Gros Orteil과 진행한 <서커스 예술놀이터>

‘움직여 무브! in 2022 서울서커스페스티벌’

3 프랑스 단체 Compagnie XY와 진행한 <서커스 점핑업> 중

‘그룹 아크로바틱의 이해와 실험’

가가 워크숍을 통해 학습하고 교류할 수 있었다.

사실 <서커스 점핑업>을 단순히 서커스 기예나 이론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서커스 점핑업>은 서커스 예술가뿐만 아니라 무용, 연극,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예술가가 참여해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며 교류하는 네트워크의 장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워크숍이 대화와 토론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의응답이 이어져 많은 시간이 소요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통의 시간은 단편적 기술과 이론의 전수보다 더욱 가치 있는 새로운 동기부여와 호기심의 자극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 인내하며 도약하는 과정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2022년 11월의 마지막 주,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한 연습실은 예술가들의 뜨거운 땀방울과 가쁜 호흡으로 가득 찼다. 서커스와 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10명의 예술가가 ‘서커스 점핑업: 연체곡예Contortion의 이해와 접근’ 워크숍에 참가해 연체곡예 동작을 익히고 있었다. 부상 예방과 유연성 증진을 위한 사전 워밍업Warming-up에만 한 시간이 훌쩍 넘게 소요됐지만 배움을 위한 예술가들의 태도는 진지하고 신중했으며 김민지 강사도 열정적 에너지로 워크숍 일정을 채워갔다.

5일간의 워크숍 동안 익힌 스플릿Split<sup>1</sup>, 백 뱀당Back Bending<sup>2</sup>, 체스트 스탠드Chest Stand<sup>3</sup>, 니들 스케일Needle Scale<sup>4</sup> 같은 연체곡예 기술을 활용해 짧은 즉흥 장면을 창작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워크숍은 끝났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한참 동안 둥글게 둘러앉아 소감을 나눴고, 각자 몸담은 예술 장르의 이야기와 함께 자신의 목표와 질문을 공유하며 2022년의 마지막 <서커스 점핑업>을 보냈다.

글 우민혁\_서울문화재단 거리예술축제팀  
사진 서울문화재단



‘서커스 점핑업: 연체곡예의 이해와 접근’ 워크숍에서 김민지 강사가 참가자의 자세를 교정해 주고 있는 모습



## <인터뷰>

### 김민지 서커스 예술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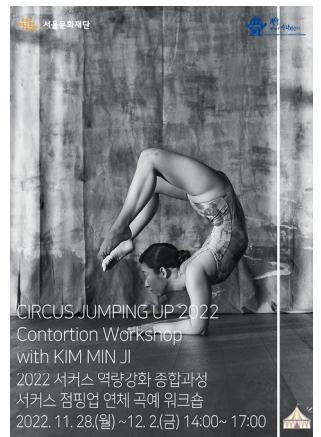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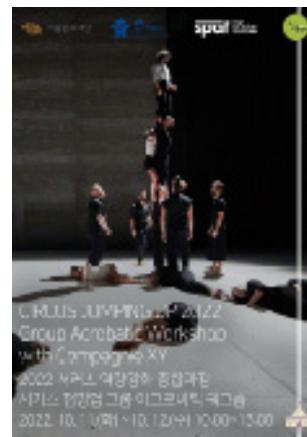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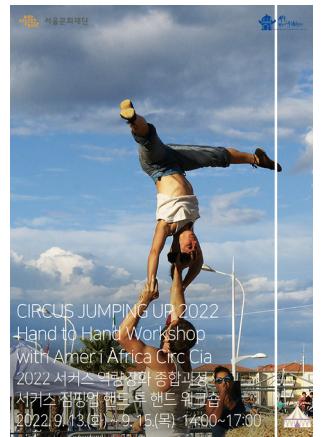
태양의서커스 본사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몬트리올 국립 서커스 학교École Nationale de Cirque, ENC’는 전 세계에서 예비 서커스 예술가가 몰려올 만큼 세계 서커스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이다. 까다로운 입학 기준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인 최초로 몬트리올 국립 서커스 학교의 DEC Diploma of College Studies 과정을 졸업한 김민지 서커스 예술가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를 찾았다. 플라잉 폴Flying Pole, 연체곡예Contortion, 폴 댄스Pole Dance를 중심으로 세계를 둘며 다양한 컨템퍼러리 서커스 공연을 선보이는 그녀에게 국내 서커스 생태계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들어봤다.

“저는 중학교 때 처음 폴 댄스를 접하면서 예술에 입문하게 됐어요. 한국보다 더 빠르게 폴 댄스 문화가 자리 잡은 필리핀 마닐라로 넘어가 무용과 폴 댄스를 배우며 학창 시절을 보내던 중에 서커스라는 예술을 알게 됐고, 그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얼마 후 해외에 서커스를 배울 수 있는 정규 교육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전해 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사실 몬트리올 국립 서커스 학교 입학을 준비했을 때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연습했어요. 그래서 이곳은 저에게 굉장히 감사한 공간이기도 해요.

졸업 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규제가 완화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공연을 할 수 있었어요. 곧 캐나다로 돌아가야 하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 이런 의미 있는 워크숍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도 큰 행운이었어요. 요즘 서울이나 지역 축제에서 어렵지 않게 컨템퍼러리 서커스 공연을 볼 수 있어 기뻐요. 물론 아직까지 국내에 서커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뿐이라는 것은 아쉽지만요.

신기하게도 캐나다에 있는 많은 동료도 한국에 서커스 축제가 있다는 사실과 서커스 관련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교류하고 싶어 해요. 이런 점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모든 예술이 그렇듯이 서커스 기예 하나를 익히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멍이 드는 것은 일상이고 때로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하



고요. 저는 국내 서커스 생태계도 같은 환경에 있다고 생각 해요. 아직은 비교적 규모도 작고 낯선 분야라 다양한 정치적·환경적 상황에 휘둘리겠지만 이런 소중한 노력과 기반을 조금씩 잘 쌓아간다면 서커스도 언젠가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튼튼한 예술 장르로 자리 잡지 않을까요?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 되겠지만요.”

- 1 180도 혹은 그 이상의 각도가 되도록 다리를 좌우로 뻗는 자세
- 2 서거나 무릎을 꿇거나 바닥에 누워 허리와 척추를 뒤로 젖히는 자세
- 3 어깨, 턱 또는 가슴을 바닥에 대고 척추를 뒤로 젖혀 두 다리를 위로 뻗는 자세
- 4 한쪽 발을 바닥에 대고 나머지 발을 뒤로 옮겨 손으로 잡아 위로 뻗는 자세

## 2022 서커스 점핑업 워크숍

날짜	프로그램명	강사
7.11~7.15	차이나스 폴Chinese Pole 안무 창작을 위한 도구들	Nilda Martinez
8.22~8.23	3D 모델링3D Modeling을 활용한 공연 공간 구상	백혜린
9.13~9.15	시어휠Cyr Wheel, 그리고 신체로 하는 대화	Juan Igancio Tula(Cie 7bis)
	서커스 예술가를 위한 핸드 투 핸드Hand to Hand, 밸런싱Balancing	Àfrica Llorens, Raimon Mató(Amer i Africa Circ Cia)
	신체와의 대화‘acrobatic’	Jules Sadoughi(Cie H.M.G)
10.11~10.12	그룹 아크로바틱Group Arcroabatic의 이해와 실험	Peter Freeman, Seppe Van Looveren, Tuk Frederiksen, Antoine Billaud(Compagnie XY)
11.28~12.2	연체곡예Contortion의 이해와 접근	김민자



## 이제야 시작입니다

### 2022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연구분야 성과 공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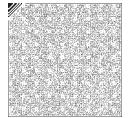
— 2017년 처음 시작한 서울문화재단의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은 장애예술인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작 지원사업이 재단 창립과 함께 시작된 것을 생각하면 본격적인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은 비교적 늦게 출발한 셈이다. 2022년에는 창작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예술 및 장애인예술과 관련된 연구 분야를 새롭게 지원하기 시작했다. 12월 10일 열린 <2022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연구분야 성과 공유회>는 이 연구 분야에 선정된 2개 팀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 발달장애예술비평을 위한 토대를 닦다

먼저 ‘발달장애예술비평 개념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바다를 채우는 통조림’(김현주, 박미연)은 발달장애예술비평의 선행 사례를 찾고 확보 가능한 발달장애예술 관련 텍스트를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퍼스 분석<sup>1</sup>을 시도해 발달장애 예술에 대한 비평 개념을 반성적으로 도출하고자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평 개념을 도출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발달장애예술비평에 대한 개념이나 지형을 그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발달장애예술비평을 쓰는 사람도 적거나 대상에 대한 설명이 주류인 텍스트 등에서 도 한계는 명확했다.

그렇다면 연구는 방향을 바꿔 다시 질문한다. 발달장애예술비평 이전에 선행돼야 하는 전제에 대해 질문하고 고민해

<sup>1</sup> 언어학, 사회학 등 조사적 목적에 의해 특정 집단 내에서 사용한 단어를 정리한 것



볼 지점을 찾는 것이다. 결국 발달장애예술인의 지속적 창작 활동이 이뤄지는 가운데 창작자와 비평가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계 안에서 새로운 비평이 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어서 ‘입체리뷰 모니터링단 연구모임’(문영민, 박하늘, 안정우, 이성수, 장근영)의 ‘접근성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한 입체리뷰 연구 과정 공유’ 발표가 이어졌다. ‘입체리뷰 모니터링단 연구모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 다양한 감각으로 문화예술 현장에서 접근성 모니터링을 진행해 그 결과를 나누는 작업을 한다. 팀은 공연장, 전시장 더 나아가 식물원 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당사자 중심적 관점으로 접근성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그 과정을 유튜브에서 공개하고 있다.

발표에서는 각 장애별 관점에서 고민한 체크리스트, 그리고 체크리스트에서 담아내기 어려운 모니터링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나눴다. 구성원이 가진 장애 유형과 유무를 떠나 개인적 감각에 따른 모니터링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 보면 한 공간 안에서도 개개인이 배리어프리에 대한 다양한 취향과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문자 통역과 수어 통역의 차이뿐만 아니라 수어 통역사가 구사하는 수어(수어는 ‘자연 수어’와 ‘문법 수어’로 나뉜다), 수어의 빠르기, 표현 능력 등에 따라 농인의 취향이 갈린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비장애인은 배리어프리가 장애인에게 단지 부차적 수단이 아니라 관극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배리어프리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기를 지나 이제는 배리어프리가 당사자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를 고민하면서 질적 수준을 높이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깨닫게 한다.

### 배리어프리 barrier free에 대한 근본적 고민

이러한 단계에서 향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를 달성하려면 ‘공간 운영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당사자가 참여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배리어프리는 단순히 장애인에게만 좋은 것

이 아니다. 경사로는 휠체어 사용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계단 이용이 불편한 노약자, 유아차를 탄 영유아, 짐 카트 보유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성수 발표자는 “접근성 향상은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해지고 편리해지는 발전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리어프리는 우리 사회의 발전 자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입체리뷰 모니터링단 연구모임’ 발표 중 장근영 발표자는 자신이 바라보는 접근성 문제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장소를 운영하는 주체의 인식이나 태도’라고 말했다. 낯설어하는 것도, 미안해하는 것도 아닌 서비스로서 방문객을 대하는 것처럼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또한 자연스러울 때 그 공간을 방문하는 장애인도 피해의식 없이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만 주셔도 저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서 배리어프리와 발달장애예술비평의 고민 모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곱씹게 된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 익숙해지는 방법은 어쨌든 ‘질문’으로 시작할 테니 말이다. 2022년부터 시작한 <장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의 연구 분야 또한 어떤 연구든 좋은 질문에서부터 시작할 것이 분명하다.

글 오영호\_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인창작센터 | 사진 공간느루



1 12월 10일 열린 <2022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연구분야 성과 공유회>

2 배리어프리와 발달장애예술비평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다정한 대답을 들려주듯



첼리스트 홍진호



— 홍진호의 첼로는 다정하다.

악기를 거칠게 몰아붙이며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첼리스트도 있다. 예컨대 트룰스 뮤즈처럼.

화려하고 자유로운 연주로 청중에게 듣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미샤 마이스키 같은 첼리스트도,

작품에 깊이 침잠하는 스티븐 이설리스 같은 진중한 첼리스트도 있다.

홍진호의 연주는 듣는 이를 다정하게 챙기면서 간다.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꿈꿔 하며 전달하며, 듣는 이의 마음을 물어가며, 그렇게 나아가는 음악이다.

그래서 그의 연주를 듣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 따뜻하고 다정한 뉘앙스를 지닌 표현들

JTBC 음악 경연 프로그램 <슈퍼밴드>의 우승팀 ‘호피풀라’ 활동으로, 대중적 멜로디로 다채로운 그림을 그린 <모던 첼로 MODERN CELLO> 음반 발매로, 그간 그가 선보이는 ‘새로운 시도’에 많은 이의 관심이 쏠렸다. <서울 스테이지11> 청년 예술청 공연을 앞두고 가진 우리의 대화는 다시 ‘소리’로 돌아갔다. 마이크를 사용하는 대중 공연과 정통 클래식 협연 무대에 번갈아 오르는 그는 최근 자신의 소리를 염려하며 가다듬기 시작했다.

“저는 지금 음악에 있어 반성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악기의 잠재력을 헤아려 봤을 때 한 40%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70, 80% 정도는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 (연습을 위한) 방으로 갑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첼로를 처음 잡은 홍진호는 그래도 ‘캐릭터가 일찍부터 잡힌 편’이었다. 좋아하는 소리, 원하는 소리가 분명했고 그 방법을 일찍부터 발견해 고집스럽게 연마했다.

“그 고집이 참… 제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그걸로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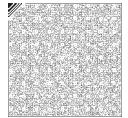
음악을 언어로 표현하는 일은 늘 한계를 갖지만 그래도 해보자면 ‘부드러운’ 소리였다. 따뜻하고 다정한 뉘앙스를 지

#### 닌 표현들.

“몇 해 전에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한 달 간격으로 요요마와 미샤 마이스키의 리사이틀을 관람한 적이 있어요. 미샤 마이스키는 동작도 크고 소리도 크고 보고 듣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분명한 색깔을 지니고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걸 유지한다는 점에서 느낀 바가 커어요. 그에 비하면 요요마는 소리가 훨씬 작아요. 흔히 너무 크니까 어떤 부분은 잘 들리지도 않죠.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나 예쁘고 소중해서 사람들이 다 몸을 앞으로 숙여 귀를 기울이면서 집중하더라고요. 그 양질의 소리를 연주회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모습이 감탄스러웠어요. 요요마의 그 소리를 저는 정말 좋아해요.”

물론 다른 방식의 표현법을 배우고 시도해 본 적도 있다. 독일에서 유학하는 동안 깊은 신뢰를 가지고 따르던 지도교수 니클라스 에핑어는 홍진호의 음악 스타일과는 다른 강하고 큰 소리를 내는 첼리스트였다. 홍진호에게 2년간의 석사과정은 그 ‘대포 같은’ 선생님의 소리를 따라 해보려 애쓰던 시기다. 맞지 않는 옷을 어떻게든 입어보려는 학생 시기의 노력은 연주자로 성장하는 데 큰 발전을 가져다줬을 것이다.

“졸업 연주 영상을 최근에 다시 봤거든요. 지금보다 소리도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과 함께한 <서울 스테이지11> 청년예술청 공연

훨씬 크고 화려하게 연주하는데… 저랑 안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적 방향과 여러 경험을 잘 섞어서 제 소리를 더 잘 만들어가야죠.”

근래 홍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매일 한 시간 바흐 연습하기’라는 제목으로 연습 영상을 올리고 있다. 잣은 방송 출연과 마이크를 사용하는 무대에 반복적으로 오르며 ‘발전 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은 그가 마련한 하나의 계책이다. 재

미있게 보고 있다고 말하니 정작 누가 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듯 쑥스럽게 웃는다.

“바흐의 음악은 첼리스트에게 ‘원점’ 같은 거예요. 스스로에게 주는 과제라는 생각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연습 영상을 노출하는 게 무척이나 부끄러운 게 사실이고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제 악기의 잠재력을 헤아려 봤을 때  
한 40%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70, 80% 정도는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 (연습을 위한) 방으로 갑니다.

### 울타리를 넘나드는 일

이날의 공연은 홍진호에게 오랜 동료이자 친구 같은 존재인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과 함께하는 무대였다. ‘그때는 우리가’ ‘꽃핀다’ ‘Hymn Forest(휴식을 위한 송가)’ 등 2022년 7월에 발매한 홍진호의 두 번째 앨범 <모던 첼로>에 수록한 창작곡을 들려줬다. 2021년 <Purify>라는 제목으로 실황 음



반을 발매하기도 했지만 <모던 첼로>는 그의 ‘현재’가 그대로 담긴, 고유한 음악 세계를 소개하는 첫 번째 명함 같은 앨범이다. 조윤성이 프로듀서를 맡고 노영심, 권태은, 선우정아, 에코브릿지, 이진아 등 서로 다른 색깔의 음악가가 홍진호의 첼로를 중심에 두고 모였다. 그리고 홍진호의 첫 번째 자작곡도 담겨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연주곡 버전을 들려줬지만 그의 자작곡 ‘그때는 우리가’는 선우정아가 부르는 멜로디가 강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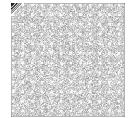
제가 할 일은 좋은 작품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전달함으로써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을 남기는 곡이다. 정통 클래식 작법을 따르는 듯하면서도 한국 근현대 음악의 정서가 묻어 있고, 차분하고 예쁜 노랫말로 부르는 대중적 선율이 돋보인다. 이 앨범을 통해 작곡과 작사를 처음 해본 홍진호는 자신이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면 시도해 볼 것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기 힘들던 1920~30년대의 풍경을 떠올리며 그 애틋함을 음악으로 만들어봤어요. 기계와 친하지 않아서 작곡 프로그램 대신 책상 위에 오선지를 펴놓고 지우개똥을 이만큼씩 만들어내면서 쓴 곡이에요. 너무 오래 걸렸고 과정 내내 우려스럽기도 했지만 곡을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같이하고 싶던 선우정아 씨도 만나고 제 머릿속에 떠다니는 정리되지 않은 언어를 가사로 표현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습니다. 첼리스트 겸 작곡가로 활동하겠다는 욕심은 없고, 다만 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작곡가가 기록한 악보를 꿈꾸하고 그 안에 담긴 서사를 온전히 전달하는 클래식 첼리스트 홍진호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표현하고 창작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된 건 역시 호피풀라 멤버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악기 구성을 바꿔가며 경연을 치러야 했던 <슈퍼밴드> 출연 기간의 경험, 호피풀라의 아일(보컬·건반), 하현상(보컬·기타), 김영소(기타)와 함께 무대에 올라 만든 멋진 칠나가 홍진호의 ‘활놀림’에 담겨 있다.

호피풀라 멤버 외에 홍진호 곁에는 피아니스트 조윤성도 있다. 즉흥 연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재즈 피아니스트인 조윤성은 홍진호와의 듀오 공연에서 종종 그를 ‘산으로 데려간다.’ 형식과 틀에 익숙하던 그가 자유로운 음악가들의 손을 잡고 울타리를 넘나드는 동안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집중하게 된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작곡이나 즉흥 연주 같은 새로운 시도뿐 아니라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를 연주할 때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홍진호는 그렇게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천천히 가꿔나가고 있다.



## 전달자의 위치에서

〈모던 첼로〉에는 한국의 동료 음악가들과 함께한 창작곡 외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Passaggio', 올라페 아르날즈의 'Undan Hulu' 등 유럽 현대 작곡가들의 곡도 실려 있다. 또한 2021년에 발매한 〈Purify〉는 에리크 사티로 시작해 아르보 패르트와 앤니오 모리코네, 브람스와 라벨로 이어지는 실황 녹음 음반으로 연주자 홍진호와 더 가깝게 마주하게 해준다. 리드미컬한 퍼치카토로 밝은 에너지와 재미를 선사하는 마크 서머의 'Julie-O'라는 곡을 이 앨범을 통해 처음 알게 돼 즐겨 듣게 됐다고 고백하니 홍진호의 눈이 반짝인다. 무반주 첼로 작품인 이 곡은 홍진호의 개성과 장점을 극대화하는 탁월한 선곡이다. 섬세하고 밝고 다정한 정서의 이러한 레퍼토리를 더 개발해 무대와 음반을 통해 들려주면 더 많은 팬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레퍼토리 확장에 대해 묻자 홍진호는 미니멀리즘 음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미니멀리즘 음악은 라몬테 영<sup>1935~</sup>, 테리 라일리<sup>1935~</sup>, 스티브 라이히<sup>1936~</sup>, 필립 글래스<sup>1937~</sup> 등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태어나 1960년대 반(反)문화를 경험한 이들 사이에서 처음 시도된 음악 사조다. 하나의 서사를 구축하며 진행하고 발전하는 기준의 작곡 방식을 거부하고 최소한의 재료, 지속적 파동을 특징으로 한다. 끝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머물고, 존재하고, 흐른다. 비서구 음악 그리고 대중 음악과 연결돼 있다는 특징도 있다.

홍진호, 그리고 비슷한 나이대인 필자를 포함한 현대의 음악 애호가가 미니멀리즘 음악에 반응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 감상자들은 완전히 개인화된 음악 감상에 익숙하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원하는 거의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길거리에서, 그리고 각종 미디어 화면을 통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시각 자극과 포개진 음악을 듣는다. 현대의 감상자들은 대체로 피로하며 각종 소음을 으로부터 차단되고 싶은 열망을 느끼기도 한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거대한 세계를 비장하게 펼쳐 보이는 음악(이

를 데면 베토벤 같은!)도 즐기고 소비하지만, 동시에 미묘한 변주로 아주 작은 세계에 침잠 혹은 표류하게 만드는 미니멀리즘 음악에도 기쁨과 만족감을 느낀다.

미니멀리즘 음악은 이제는 각기 다른 스타일, 예컨대 종교적 텍스트와 결합한 명상 음악이나 대중 친화적 색채로 영화음악을 위해 쓰인 음악 등 여러 부류의 작품이 대중과 만나고 있다. 홍진호는 비교적 잘 알려진 미니멀리즘 음악가의 여러 작품을 골라(예를 들면 영화 〈어바웃 타임〉에 흐르던 아르보 패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같은) 자신만의 색으로 이야기를 만든다. 홍진호 포지션의 연주자가 할 수 있는, 클래식 분야의 새로운 음악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궁정적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셈이다.

“최근 바이올리ニ스트 기돈 크레머가 쓴 책 『젊은 예술가에게』를 읽으며 공감한 내용인데, 클래식 분야의 기류가 점점 스타 연주자를 부각하고 작곡가는 그들을 빛내 주는 역할을 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은 좋은 작품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전달함으로써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홍진호는 지금, 다시 원점에 서서 자신의 소리를 객관적으로 듣기 시작하며 음악가로서 자신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있다. 예술가로서의 목적지란 ‘아직 모른다.’ 다만 좋은 소리를 만들고, 모자람 없는 전달자가 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자신을 빛나게 하는 일임을 깨달아 수행하고 있다. 2023년의 그는 정통 클래식 무대에 더 서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으로 삼으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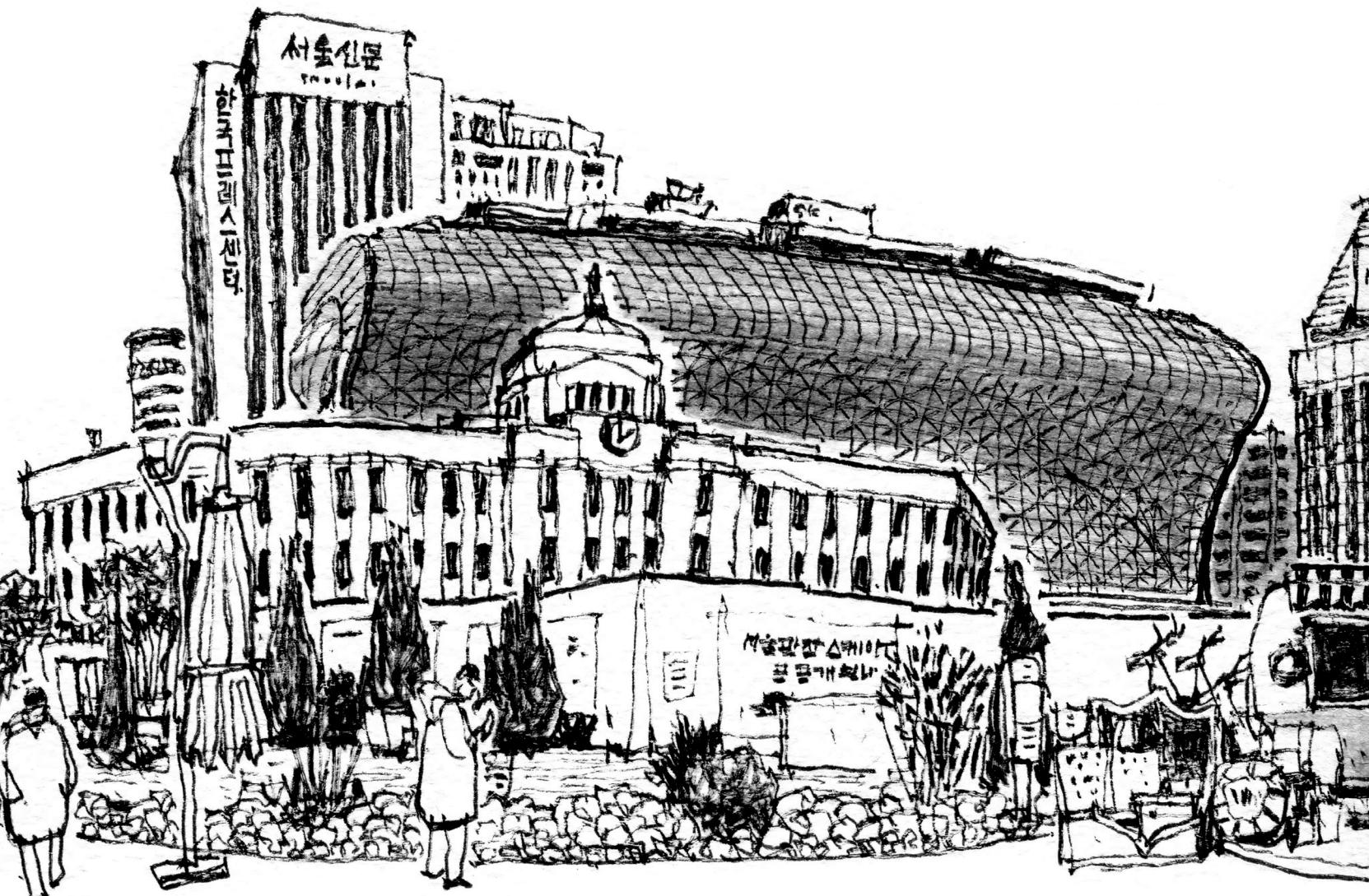
무대 위 자신의 반짝이는 순간들을 사랑해 준 관객에게 그는 앞으로 더 밀도 있는 음악을 들려줄 것이다. 그의 첼로가 내는 소리처럼 다정하게, 또 성실하게,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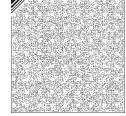
글 김호경\_〈아무튼, 클래식〉《플레이리스트: 음악 듣는 몸》저자

사진 제공 크레디아, 서울문화재단

##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먹자골목

다동과 무교동





—— 12월의 시청 앞은 건조하고 차가운 햇볕으로 가득했다.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달이다. 새로운 해에 대한 설렘과 바람으로 2022년 달력의 첫 장을 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열 두 장 달력의 마지막 한 장만 남았다. 시청 앞 서울광장 한쪽 구석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12월이 왔음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다. 서울광장이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던 12월 초, 오랜만에 시청 지하 1층의 시민청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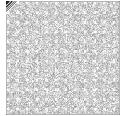


### 시민청,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의 장

서울시청 지하 1층과 2층에 2013년 문을 연 시민청은 시민이 스스로 만들고 누리는 시민 생활 마당으로 전시, 공연, 토론, 교육, 휴식, 놀이 등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이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펼쳐질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지하 1층에는 시민청갤러리·활짝라운지·스마트서울전시관·청년활동소·소리갤러리·담벼락 미디어·서울책방·군기시유적전시실 등이 있고, 지하 2층에는 태평홀·バス락홀·시민아지트·워크숍룸·동그라미방 등 사전 예약을 통해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시민청의 '청'

은 관청 청廳자가 아닌 시민의 생각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의미의 들을 청廳자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방문하기 어려웠던 시민청을 다시 찾은 이유는 시민청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열정 넘치는 시민 화가 어반스케쳐스서울의 정기 전시회 <여기:서울 2022>를 보기 위해서다. 시민청갤러리의 넓고 하얀 벽을 액자도 없이 가득 채우고 있는 수백 장의 그림은 한장 한장 따로 떼어놓고 봐도 멋졌다. 하지만 각 그림이 다다다다 붙어 만들어내는 울긋불긋한 색감과 자유로운 배치는 개별적 아름다움을 뛰어넘고 있



었다. 제각각 붙어 있는 이 작은 그림의 집합은 마치 우리의 도시처럼 보였다. 그리고 나는 서울시청 동북쪽, 을지로와 청계천 사이 고층 빌딩의 바다에서 마치 섬처럼 남아 있는 다동과 무교동의 작은 집들과 좁은 골목을 떠올렸다.

전시를 보고 거리로 나오니 점심시간이다. 다동과 무교동의 골목은 인근 오피스 고층 빌딩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어린이 재단빌딩 앞 넓은 택deck 공간을 지나 태평로 파출소 앞에서 다동과 무교동의 ‘먹자골목’ 산책을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다동·무교동 음식문화거리’라고 부르는 이 골목의 역사는 무척 오래됐다. 1932년에 문을 연 서울식 추탕집 ‘용금옥’은 이 오래된 거리에서도 가장 오래된 집이다. 미꾸라지를 갈지 않고 통으로 끓이는 이 노포老鋪에 쌓인 이야기가 곧 이 골목의 역사다.

### 다동과 무교동, 전쟁터 같은 하루의 최후방 방어 기지

얼핏 보기에도 쌓인 연륜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이 골목에 오래된 노포가 용금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복쟁반의 ‘남포면옥’, 육개장의 ‘부민옥’, 사골로 끓이는 육수의 맛이 깊고 구수한 ‘무교동북어국집’ 등 1950~60년대 장사를 시작한 식당이 줄비하다. 10년 된 식당도 찾기 힘든 요즘 같은 시대에 20~30년쯤 된 식당은 이곳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현재 다동과 무교동의 먹자골목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구역은 다동이지만 예전에는 이 일대를 흔히 ‘무교동 골목’이라고 불렀다. 무교동 낙지골목은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사라져 버린 오랜 신화처럼 후대에 전해지지만 여전히 골목에는 끝끝내 몇몇 집이 남아 낙지골목의 옛 영화를 기억하게 만든다.

무교동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여러 과일을 팔던 모전毛鹽과 무기의 제조와 관리를 담당하던 군기사<sup>1</sup>에서 유래한다. 모전을 중심으로 웃모전다리와 아래모전다리가 있었는데 웃모전다리를 모교라 했고, 아래모전다리를 웃모전다리와 구분해 무교武橋라고 했다. 무기를 만들던 군기사軍器寺가 있어 무武자를 사용해

무교라고 한 것이다. 그 무교가 있던 동네의 이름이 무교동이다. 지금도 무교동 사거리와 서린동을 연결하는 청계천 다리의 이름은 모전교다. 무교동에는 예전에 국숫집과 팔죽집이 많아 국숫골, 팔죽골이라는 동네가 있었다고 한다. 무교동의 먹을거리 역사는 오래전 시작됐다. 다동이라는 이름도 이곳에 궁중의 다례를 주관하던 사용원 소속의 다방이 있어 ‘다방골’이라 불렸던 데서 유래한다. 동네의 이름에 그곳의 역사가 있다.

다동과 무교동의 먹자골목은 인근의 오피스 고층 빌딩과 서울시청의 월급쟁이에게 잠깐 주어지는 소중한 ‘점심시간’의 무대이고, 동료와 함께하는 한 끼 식사로 오후를 벼텨내는 에너지의 공급처다. 최근 후 저녁시간 역시 이 골목은 전쟁터 같은 밥벌이의 전장에서 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최후방 방어 기지이기도 하다.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대로변의 고층 빌딩에서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을 것 같은 정교한 하루를 보낸 직장인들에게 이곳 다동과 무교동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은 참았던 숨을 터트릴 수 있는 숨구멍이다. 목 끝까지 단단하게 조이던 넥타이를 풀어 해치고 비틀거리며 걸어도 용납되는 도시의 숨구멍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가. 얼큰한 낙지볶음 한 접시에 쓰디쓴 소주 한잔이면 무섭던 세상도 만만해진다. 회사를 다니지 않는 나 같은 반半백수에게도 그렇다.

다동과 무교동의 좁고 구불거리는 길에서 펼쳐지는 먹고 마시고 노는 유흥의 역사는 오래전에 시작돼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저 걷고 보는 것만으로는 다동과 무교동의 매력을 100% 만끽할 수 없다. 다동과 무교동의 골목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그 골목 어디쯤 위치한 끝리는 식당을 한 군데 골라 맛있는 음식에 달달한 술 한잔을 걸쳐보기를 권한다. 아마도 한동안은 이 골목에서 벗어나기 힘들지도 모른다.

<sup>1</sup>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병기兵器의 제조를 맡아 보던 관아를 말한다.

트렌드+서울

공간 1



전시〈일시적 개입〉



전시〈국내여행〉

새롭게 정의 내려진 ‘로컬리티<sup>locality</sup>’,  
그 한계는 어디까지?



전시〈일시적 개입〉과 〈국내여행 GRAND TOUR KOREA〉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뚫리면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3년 동안 밟지 못한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그러나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코로나19 팬데믹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다양한 ‘로컬local’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공간적 의미의 지역 그 너머에 있는 다채로운 삶의 모습과 내면의 감각에 주목하는 두 개의 전시를 소개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 거리두기는 끝나가지만 ‘이 땅 이곳’만이 줄 수 있는 감각과 생각거리를 통해 자신의 사유를 확장하고 싶은 사람은 주목하기를!

### 로컬과 그 너머의 다양한 삶의 모습

〈2022 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일시적 개입〉

2022.11.18~2023.1.21 | 아르코미술관 제1,2 전시실, 스페이스필룩스

‘로컬리티locality’를 주제로 하는 전시라고 해서 단순히 지역이나 장소에 국한한 내용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전시 〈일시적 개입〉은 로컬 자체보다는 로컬에 깃든 삶, 문화, 문제에 대해 집중한다. 어떤 장소의 고유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장소 위에 있는 환경과 그곳을 둘러싼 다른 장소와의 상호작용이라는 복합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전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마치 로자바(시리아 동북부 자치행정부)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로자바의 민주주의 투쟁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의정부 빼빼마을을 오롯이 느끼기 위해서는 미군부대 내의 정착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처럼.

전시 〈일시적 개입〉은 지역의 시공간적 맥락과 더불어 지역 내에서 조차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담아내고자 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체’의 범위는 어디까지 정의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말이다. 사람들이 애써 신경 쓰지 않는 감각조차 이곳에서는 전시 내용이 된다. 비단가의 내음이나 돌멩이의 촉감과 같은 직관적 감각에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다양한 이웃들과의 소통까지, 모든 것이 작품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 함은 여성·장애인·퀴어 등 사회적 소수자는 물론 기후변화·자본·성장 등의 사회적 문제, 그리고 애써 외면해 온

동식물·노동자까지 모두 포함된다. 지리적 로컬 개념으로는 충분히 담지 못하는 이웃들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와 연대를 보다 보면 어느새 나의 무지와 무신경에 대한 걱정도 따라온다. “어쩌면 ‘일시적 개입’은 더는 ‘일시적’으로 남지 않을 것만 같다”는 예감도 덤으로 함께.

### 진짜 로컬은 이 땅 이곳에

〈국내여행 GRAND TOUR KOREA〉 | 2022.10.21~2023.2.19 | 피크닉

전시 〈국내여행 GRAND TOUR KOREA〉는 좀 더 ‘여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여행을 통해 이 땅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 땅 위에서 있는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점에서 앞선 전시와 맥락이 맞닿아 있다. 국내 지역에 한정해 전시를 꾸렸는데 그렇기에 더욱욱 ‘나’와 ‘내가 살아가야 할 이 나라’라는, 다소 가까운 곳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전시는 ‘여행은 곧 길을 떠나는 것’이라는 주제를 통해 길 위의 감각을 온전히 되살리기도 하고 산, 바다, 나무라는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을 하나씩 다루면서 우리가 취해 온 삶의 방식을 다뤄보기도 한다.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려는 농경시대의 집단적 이상인 배산임수<sup>背山臨水</sup>, 외부인에게 조차 장벽을 세우지 않는 마을 건축물의 구조 등이 좋은 예시다.

여행은 단순히 공간적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 ‘시간 여행’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경상북도 경주시의 능<sup>陵</sup>을 보고 있자면 신라인의 죽음을 응시하게 되고, 한때 가닿을 수 없는 아득한 공간이던 금강산이나 옛 서울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시간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디지털을 통해 익숙하게 봄은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 있는 선조의 지혜, 특정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애달픈 역사적 이야기, 특정 지역에 깃든 나만의 경험 등을 포개어 함께 느끼다 보면 이 좁은 대한민국 땅도 과연 ‘그랜드 투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이 주는 감동의 여운과 함께 약간의 먹거리와 여행 정보가 따라오는 것이 이 전시의 묘미다. 전시 티켓 구매자에게는 1층 카페에서 일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별관에 위치한 책방에서는 국내 여행 관련 책도 큐레이팅하고 있으니 들러보길 바란다.

글 손성원\_《한국일보》기자 | 사진 제공 아르코미술관, 피크닉



반려동물의 사랑과 헌신을 그린 그림자극 &lt;늙은 개&gt;

## ‘공존’을 생각하다

<2023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와 연극 <히어HIR>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

《트렌드 코리아 2023》에 따르면 2023년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평균 실종’이다. 정치 이념과 소득이 양극화되는 가운데 더는 대세를 따르지 않고 고유의 개성을 표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언뜻 모든 고유함을 존중하는 평화의 시기가 될 것 같지만 실은 이미 많은 사회에서 ‘평균 실종’ 현상이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단일한 보편성이 사라진 다원화의 시대, 이른바 ‘평균’이 ‘실종’된 2023년.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공존’을 키워드로 단초를 제시하는, 서로 다른 분위기의 연극 축제와 연극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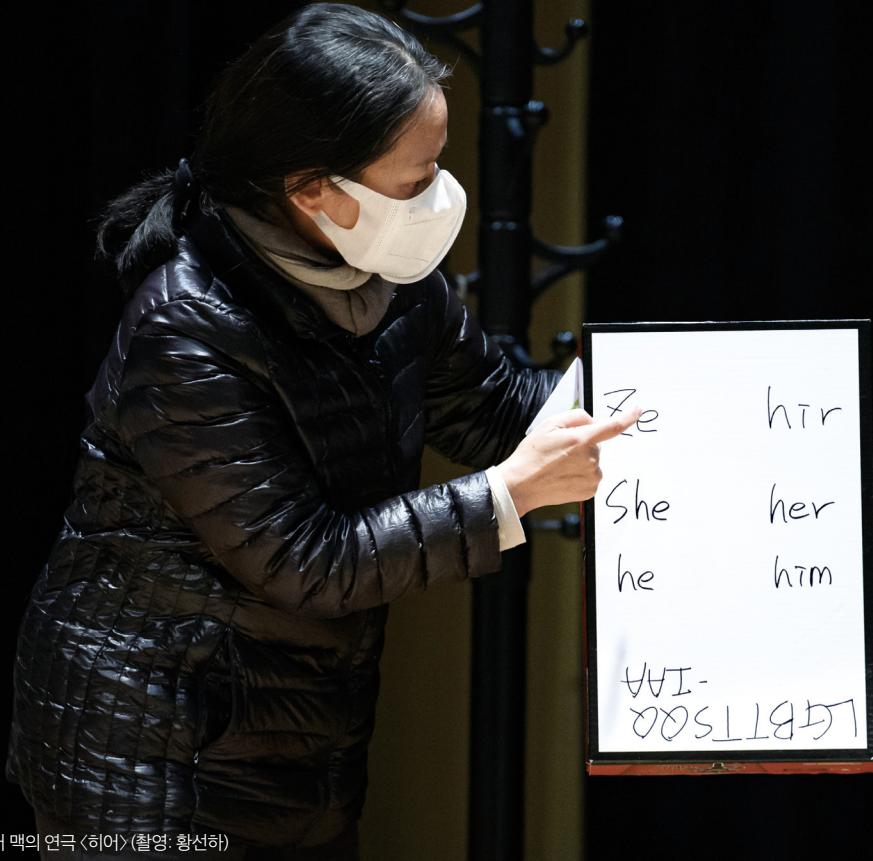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편안한 공연 관람을 꿈꾸며

2023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 2022.12.28~2023.1.8 |

종로 아이들극장, 대학로극장 쿼드, 이음센터 이음아트홀

국내 대표 어린이청소년 예술공연 축제인 <2023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가 1월 8일까지 진행된다.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아시테지 코리아)는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시기에 각각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와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를 열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공연 및 예술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해 왔다. 2022년 19번째를 맞은 겨울축제는 ‘공존Coexistence: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함’을 주제로 연극과 북페어, 라운드테이블 등을 준비했다.

연극은 심사위원이 엄선한 대표 공연 5편과 뉴챌린지 2편으로 구성됐다. 필리핀 민담과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재해석한 어린이음악극 <거인 양갈로>를 비롯해 반려동물의 사랑과 헌신을 그린 그림자극 <늙은 개>, 관객참여형 재판극 뮤지컬 <사슴 코딱코의 재판>, 청소년이 겪는 부정적 감정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청소년극 <나는 거위>, 감각 친화 공연 <똑, 똑, 똑>을 만나볼 수 있다. 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치는 작품을 발굴해



테일러 맥의 연극 <히어>(촬영: 황선하)

소개하는 뉴챌린지에는 자연 위기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서커스 공연 <합!>과 테이블 인형극 <드라큘라와 음악 선생님>이 선정됐다. 이 중 <똑, 똑, 똑>은 발달장애 어린이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사슴 코딱코의 재판>은 전 회차 수어 통역을 제공한다.

이번 겨울축제는 ‘공존’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생태환경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나이와 장애 유무로 인한 관람 제한을 최대한 줄였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연극을 통해 다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기회가 될 것이다.

---

#### 다시 질문하게 되는 가족의 의미

<히어HIR> | 2023.1.13~1.29 | 더줌아트센터

---

정형성과 경계를 벗어나는 아티스트 테일러 맥 Taylor Mac의 연극 <히어 HIR>가 국내에서 초연된다. <히어>는 문화적 양극화를 다룬 테일러 맥의 대표작으로, 2014년 초연된 이후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전 세계에서 70개 이상의 프로덕션에서 제작됐다.

작품은 3년간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복무를 마치고 아이작이 집에 돌아오며 시작한다. 안락한 집을 꿈꾸며 돌아왔으나 아이작을 맞이하는 건 난장판이 된 집이다. 3년 사이 뇌졸중을 겪고 지금은 무지개색 가발을 쓰고 광대 같은 옷차림으로 생활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겪은 과거의 폭력을 떠올리며 보복을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어머니, 가출을 꿈꾸는 미성년자 트랜스젠더 동생 맥스가 그를 맞이한다. 아이작은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변화가 찾아온 집에서 익숙한 질서를 되찾고자 분주하지만 그의 바람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백인 서민 가정의 불안정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히어>는 관객으로 하여금 젠더와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평범한 가정이 허상으로 느껴지는 현대사회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구성원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뤄 살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다. 최근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연극 <오일이>을 올린 극단 풍경의 박정희가 연출을 맡았고, 박명신·김수현·홍선우·김하람이 불완전한 가족으로 분한다.

글 연재인\_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사진 제공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더줌아트센터



희망이 되면  
 소망 所望 꾸내풀  
 터뜨리면서 웃음  
 굴러봅시다.  
 터놓다  
 아무리 험난하고  
 얼음장처럼 가슴한쪽  
 때가 되면,  
 이거 있음 대문이 둘듯  
 우리의 꿈도  
 얼음장 밤, 미네리  
 거친 들판 위, 봄보리처럼  
 푸르게 오를 것이다.



청계천판잣집체험관: 청계천 복원 전이던 1960~70년 당시 청계천변 판잣집을 재현해 당시 서민의 애환과 삶을 조명한 문화·역사 체험 장소다. 현재 내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미술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글 사진 김영호\_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장

※ 서울 찰나의 본문 서체는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의 필체를 본떠 만든 '박상원체'를 사용했습니다.

# 유튜브의 ‘쎈 캐릭터’가 지상파에 갈 때

‘다나카’와 ‘풍자’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인기 프로그램 ‘튀르키예즈 온 더 블록(이하 튀르키예즈)<sup>1</sup>’ 22편 출연자는 ‘다나카’다. 다나카는 일본 가부키초의 호스트 클럽에서 일했으나 인기가 없어 지명을 받지 못해 유튜브에서 ‘다나카의 먹끄방그’(‘먹방’의 일본식 발음)를 시작했다. 외국인이 한국 음식을 어설프게 만들어 먹는 것이 다나카를 한국에서 유명하게 만들었다. 이를테면 씨앗호떡을 만드는데 반죽 안에 작물의 진짜 씨앗을 넣는다거나, 자장면에 탕수육 소스를 뿌려 먹는 식의 실수가 오히려 인기를 끈 것이다.



## 한국 문화에 무지한 일본인 호스트의 등장

평소 한국을 좋아한 다나카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면 무서워하고, 음악적 재능을 살려 싱글앨범 발매 후 한국에서 팬 미팅을 열기도 했다. 다나카는 출연하면 조회수 100만은 가볍게 넘기는 유튜브 흥행 보증 수표다. ‘튀르키예즈’에 여러 번 출연한 다나카가 이번

에는 지인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찾았다(르세라핀 편). 유튜버 김홍남(53), 디자이너 김건욱(27), 나몰라패밀리 출신의 개그맨 김경욱(40)이 다나카의 절친이다.

이 세계관을 모르는 독자를 위해 잠시 설명을 좀 하자면, 다나카를 비롯한 위의 네 명의 인물은 모두 동일인이다. 개그맨 김경욱이 유튜브 <나몰라패밀리 핫쇼> 채널에서 기획한 콩트 속 부캐들이고, 그중 다나카의 인기가 높다

보니 출지에 다나카가 출연하는 방송에 김경욱이 매니저처럼 동행해 엇갈려 출연하는 식이다. (김경욱이 가발을 쓰고 다나카를 연기하고 있기에 두 사람을 한 영상에서 보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일본의 호스트를 연상시키는 샤기컷에, 한겨울에도 검은 반팔티와 명품 로고가 강조되는 벨트를 착용하는 다나카는 이제 지상파까지 진출했다. MBC <라디오스타>에 일본에서 온

<sup>1</sup> ‘스튜디오 와플’이 제작한 초저예산 길거리 토크쇼를 빙자한 이용진의 인터뷰식 토크쇼 웹 예능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스튜디오 와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다.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패러디했으며 프로그램 구성마저 B급 맞춤으로 재구성했다. 본래 ‘터키즈 온 더 블록’이었으나 국호 개정에 맞춰 ‘튀르키예즈 온 더 블록’으로 개칭됐다.



다나카라는 설정으로 출연한 것이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나 가능한 '호스트'라는 직업 설정을 지상파에서는 어떻게 순화했을까? 당연하게도 방송 내내 호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시청자에게 익히 알려진 이가 다른 캐릭터를 가공해 이름부터 나이, 살아온 전력, 직업과 말투, 성격까지 세계관을 꾸며내 활동하는 '부캐'는 꽤 알려진 개그 양식이다. 그러나 김경욱의 부캐 다나카의 호스트 설정은 <라디오스타>에서는 표백된다. 대신 모든 토크를 일本人의 어눌한 한국어 발음("일본에鞠 유명 그 술집에鞠 일을 하다가 한고쿠 너무 좋아해鞠 한국의 케이 도라마 도카 케이 무으비 좋아鞠")으로 하면서, 한국 문화에 무지한 콘셉트를 개그 코드로 이용한다. 이쯤 되면 지상파 방송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왜 지상파에서조차 호스트 콘셉트의 예능인을 초대해 '일본인 콘셉트'만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유튜브 스타가 지상파 TV에 출연할 때, 지상파는 그의 기존 인기와 팬덤이 유입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방송이 최신 유행을 열심히 쫓고 있음과 동시에, 스스로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창조하는 시대가 종언됐음을 상기한다. 온라인에서 유행한 뮤이나 캐릭터를 그저 유행이라는 이유로 방송국에 입성시켰을 때 그것은 무엇도 창조하지 못하고 그저 뒤따라가는 올드미디어의 현 위치만 확인시킬 뿐이다.

### 트랜스젠더의 성역 없는 토크

다나카와 더불어 유튜브 인기를 타고 지상파

에 입성한 대표적 인물이 '풍자'다. 풍자는 유튜브에서는 개인 채널 <풍자테레비>를 운영함과 동시에 여러 채널에서 자기 이름을 건 프로그램을 몇 개나 진행하는 대세 유튜버다. 대표적인 것이 '또간집' '바퀴달린 입' '풍하우스' '존예부럽다' 등이다. 풍자는 다년간 아프리카 BJ로 활동하면서 쌓은 탁월한 입담과 유쾌한 독설을 무기로 하는 유튜버다. 풍자가 진행하는 방송뿐만 아니라 게스트로 출연한 영상도 조회수 100만은 보장된다. 인맥도 넓은 데다 섭외 능력과 순발력도 뛰어나다.

본인 채널에서 트랜스젠더로 살며 겪은 에피소드, 술자리 실수, 연애 상담까지 솔직하게 떠드는 풍자 역시 최근 지상파로 진출했다. 일회성 게스트가 아닌 고정 출연자로 김민경, 신기루, 홍윤화와 함께 tvN <한도초과>에 출연한다. 위풍당당한 네 명의 여성이 함께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콘셉트의 이 프로그램에서 '빅재미'를 유발하는 것은 신기루와 풍자의 호흡이다. 두 사람은 유튜브에서도 여러 차례 함께 출연해 '먹방'과 '술방'을 하기도 했다.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어 지상파에 재입성한 코미디언 신기루, 인터넷 개인 채널부터 인지도를 쌓은 풍자의 유튜브 속 토크 8할은 흡연과 성적인 농담과 음주, 음식에 관한 것이다. 특히 풍자는 유튜브에서는 흡연 사실을 자주 언급한다. 흡연에 대한 언급은 <한도초과>에서도 등장하는데, 자사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담배냄새라는 단어가 무음 처리된다. 트랜스젠더라는 풍자의 아이덴티티 역시 지상파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풍자와 신기루가 평소 유튜브에서 행사하는 독하고 솔직

한 예능은 지상파에서는 순한 맛으로 이식된다. 이들은 영리하게 방송국과 유튜브에서 서로 다른 유머를 구사한다.

방송국이 방송을 짧은 클립으로 편집해 유튜브 자사 채널에 올려 수익을 내는 구조가 자리 잡은 후 지상파 방송들도 유튜브 채널용 영상을 미방용을 이용해 다시 제작하는 것이 주세다. TV에서 수용되는 것과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얻을 만한 영상은 다르다. 같은 촬영본이라도 유튜브용으로 재편집하고 자막을 새로 만들어야 조회수가 올라간다. 신기루에게 전성기를 안겨준 '터키즈 온 더 블록'의 신기루 편제목은 이러하다. '공중파는 담지 못할 알싸한 매운맛 신기루'. 술, 담배, 남편과의 첫 만남 등 지상파 토크쇼에서는 주로 무음 처리될 이야기를 솔직하게 엮어내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고 다시 지상파로 진출하는 것은 요즘 예능인의 숙명이다.

성역 없는 토크로 전성기를 맞은 풍자와 신기루, TV에서는 시도하지 못할 호스트 설정으로 인기를 얻은 다나카. 이들이 유튜브에서 거칠고 '쎈' 것을 시도하고 이것이 대중적 사랑을 받자 지상파는 다시 이들을 불러들인다.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가 같은 예능인을 주고받으며 서로 다른 양태로 활용한다. 이들을 TV로 처음 접한 시청자가 유튜브에서 원본 영상을 맛보지 않는 이상 다나카와 풍자의 인기 요인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글 김송희\_『빅이슈코리아』 편집장,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 저자, 칼럼니스트 | 사진 제공 유튜브 채널 <나몰라 패밀리 핫쇼> <풍자테레비>

## 콩가루와 콩고물, 나와 우리

이재은, 임지선 감독의 〈성적표의 김민영〉



〈성적표의 김민영〉(2022)

감독 이재은, 임지선  
출연 김주아(정희), 윤아정(민영),  
손다현(수산나), 임종민(정일)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 갇혀 오직 수능만 준비하던 시절에는 너와 내가 이렇게 다른 길 위에 서 있을 줄 몰랐다. 그때 우리는 크기만 살짝 다른, 다 같은 콩이라고 생각했다. 경계에 서서 아직 자라지 않은 것이 당연하던, 같아 있기에 우리는 같다고 생각하던 시간이었다. 막연하게 잘될 것 같았던 미래가 어느 사이 커켜이 쌓인 벽돌로 꽉 막힌 현재가 돼 나타날 줄 몰랐다. 그리고 같은 콩이던 우리가 콩가루와 콩고물만큼 다른 존재가 돼 있을 줄 몰랐다.

●

### 성적표의 우리

김민영(윤아정), 유정희(김주아), 최수산나(손다현)는 고등학교 시절 삼행시 클럽을 만들어 우정을 나눈다. 졸업 후 민영은 대학생이 되고, 정희는 아르바이트생이 되고, 수산나는 유학을 간다. 절대 깨어질 것 같지 않은 단단한 우정이라고 믿었지만 각자 다른 생활 속에서 세 친구의 관계는 소원해진다. 그러다 정희는 민영의 집에 가게 되고, 학창 시절처럼 즐거운 시간을 기대했지만, 민영은 기말고사 성적표를 정정하느라 바빠 정희를 신경 쓰지 않는다. 10대 시절, 마지막 즈음에 나의 학창 시절 12년을 평가한 것은 수능 성적표였다. 성적표대로, 성적표가 나눠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라 우리는 각기 다른 길 위에 서서 스무 살이 됐다.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그저 막연하기만 하던 미래에 희미하고 좁은 길이 생긴다. <성적표의 김민영>은 경계를 넘어버린 20대 초반, 어떤 것도 될 수 있지만 사실 어떤 것도 되지 못한 시간의 외로움과 막막함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이제은, 임지선 감독은 수능을 본 세대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절로 관객을 끌어들인다. 이성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상상 가능한 성장 코미디와 달리 <성적표의 김민영>은 달뜨고 낯 뜨거운 이야기 없이 그저 평범하던 그 시절의 우리로 돌아간다. 닮은 것 같지만 아주 다른 세 친구 중 하나는 확률적으로 나와 닮았다. 누구에게 마음을 주는지에 따라 영화를 보는 마음과 온도도 달라진다.

### 우리의 성적표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입장도 대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성적표의 김민영>은 상대방이 원하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탓하지 않는다. 그저 입장이 다른 것일 뿐 상대의 마음에 가닿지 못한 마음의 무게와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의 무게 중 어떤 것이 더 묵직하고 의미 있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다른 길 위에 서서 다른 시간을 보낸 민영과 정희, 함께한 시간이 사라진 만큼 나눌 수 있

는 시간도 줄어들어 있다. 둘의 대화는 툭툭 끊기고 함께하는 시간은 다소 서먹하고 어색하다. 정희는 자꾸 과거를 사진첩처럼 끄집어내 우리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민영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꾸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당장 살아야 하는 오늘이 가장 버거운 우리는 어느새 우리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어른이 됐다. 어린 시절, 관계와 소통을 원하던 우리의 작은 바람은 어른이 된 후 보니 실은 아주 큰 바람이었음을 알게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테니스를 치는 것과 비슷하다. 훈련과 눈치, 그리고 경계가 필요하다. 잘 들여다보고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누군가는 계속 공을 치고 누군가는 계속 뛰어다니며 공을 주워야 한다.

어른거리는 길 위를 어슬렁대던 하루의 끝, 관계의 본질을 관찰하는 정희의 맑은 시선은 가닿지 않았지만 소중한 그 시절 우리의 마음 위로 살포시 내려앉는다. 그래서 풀썩대며 부산스럽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은, 여전히 우리를 한 그릇에 담아둔 정희가 품은 마음의 온도가 월컹대는 우리의 시간을 톡탁토닥 다독여 준다.

글 최재훈\_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 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나는 아팠고, 어른들은 나빴다』 등이 있다.

# 실향민이 지킨 해서탈춤

장용수와 양소운

한국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참 기쁘다. 앞으로 더 많은 젊은이가 전통 탈춤을 기반으로 다양한 탈춤 공연을 만들게 될 것 같다. 전통 탈춤은 지역적으로 특색이 강하다. 인천 태생인 나는 특히 해서 지방<sup>海西地方</sup>에 끌린다. ‘해서탈춤’ 하면 특히 두 사람이 떠오른다. 장용수<sup>莊龍秀, 1903~1997</sup>와 양소운<sup>梁蘇云, 1924~2008</sup>. 장용수는 황해도 은율 태생이고, 양소운은 황해도 재령 태생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수봉공원에 은율탈춤전수관이 있다. 1983년 설립되기 이전에는 어디에서 해서탈춤을 찾을까? 인천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의 인천국악원에서 장용수와 양소운이 가르쳤다. 지금 인천국악원은 동인천역 북광장의 한 귀퉁이로 변했다.



1

## 여름이면 건강한 땀 냄새로 춤만하던 경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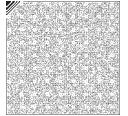
양소운은 인천 자유공원 아래 내동 5번지에 살았다. 여러 제자가 들락날락하며 노래와 춤을 익혔다. 양소운은 1963년 세워진 을목공원에 있는 경아대<sup>景雅臺</sup>에서도 가르쳤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 여름방학이 되면 경아대에 대학생 무리가 모여들었다. 해서탈춤을 배우기 위해서다. 20~30명의 학생은 거기서 먹고 자기까지 하면서 탈춤을 익혔다. 지금은 그리 넓게 보이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수용했다. 여름날 젊은이의 건강한 땀 냄새가 밴 경아대를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1967년, 양소운은 봉산탈춤으로 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지정을 받았으나 은율탈춤, 해주검무를 가르치는 데도 힘을 썼다. 당시 이은관의 배뱅이굿이 유명했지만 양소운의 배뱅이굿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탈춤을 배우는 학생들이 청하면 양소운은 즉흥적으로 배뱅이굿 타령을 불러주기도 했다. 황해도의 가무악희<sup>歌舞樂戲</sup>는 양소운의 신앙과 같았다.

1973년 5월 27일 일요일 오후 1시, 인천에 사는 실향민이 대거 서울 국립극장에 모였다. 황해도민속예술보존협회를 만든 양소운이 <황해도 민요발표회>를 열었다. 장용수와 양소운 등 스무 명의 황해도 출신 실향민이 하나가 돼서 고향의 노래를 불렀다.

이러한 영향이었을까? 1975년 10월 24일, 황해도 지역의 민요가 더 큰 주목을 받으면서 공연을 했다. <명창대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사흘간 펼쳐졌는데, 첫날 공연은 노래를 사랑하는 김창구 국장장이 기획했다.

김창구<sup>金昌九</sup>는 누구인가? HLKA(현 KBS)의 음악계장 출신이다. 그가 만든 라디오 프로그램이 <노래자랑>이다. 1955년 7월 1일 처음 방



1 1997년 10월 인천 수봉공원 놀이마당에서 열린 양소운의 탈춤 공연

2 장용수

3 장용수의 은율탈춤 전수발표 공연 자료

승됐다.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다. 당시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아마추어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었다. 프로듀서는 김창구, 진행은 장기범 아나운서였다. 당시 동아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열렸다. 김창구는 신조가 있었다. 한민족만큼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은 없다. 노래는 언제나 국민의 힘이 되고, 노래 프로그램은 언제나 성공 한다는! 방송국 프로듀서 시절 KBS 전속가수를 발굴하고 양질의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던 김창구는 극장장이 돼서 실향민을 위한 노래 공연을 성사시킨 것이다.

### 북쪽 스승과 남쪽 제자의 눈물 겨운 상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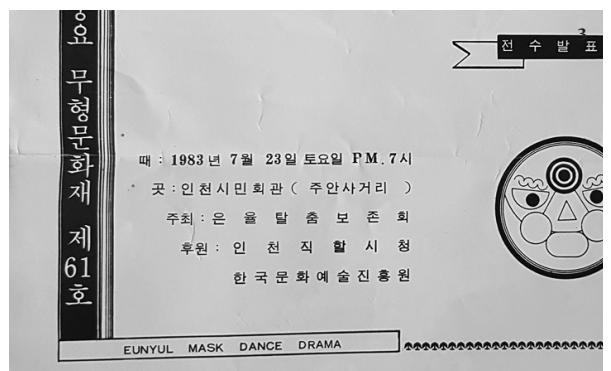
1990년 12월 9일과 10일 이틀간 <송년통일음악회>가 열렸다. 9일은 예술의전당에서 남쪽이 먼저 시작했고, 10일은 국립극장에서 북쪽이 먼저 시작했다. 북한의 최고령 성악가(서도명창)이자 인민배우 김진명은 10일 공연에서 남쪽의 제자 양소운(당시 봉산탈춤 인간문화재)과 만났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김진명은 객석에서 나오기 시작한 추임새를 보고 놀랐다. 제자 양소운의 추임새였다. 공연이 끝난 후 분장실에서 만난 김진명이 제자 양소운을 보고 한 첫마디는 다음과 같았다. “왜 이렇게 늙었어!” 두 사람은 얼싸안고 눈시울을 붉혔다.

1994년은 ‘국악의 해’였다. 설날을 맞아 서울놀이마당에서는 2월 10일 봉산탈춤, 11일 은율탈춤을 선보였다. 각각 양소운과 장용수가 제자들과 함께 출연했다. 젊은 제자들이 춤을 잘 추는 것이 대견했지만 나이 지긋한 인간문화재 두 사람은 세월과 나이를 탓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용수는 마당판에서 예전만큼 춤을 추지는 못했으나 북한 지역의 토속민요를 알리는데 힘을 썼다. KBS-FM에서 녹음한 <북

한지역의 토속민요>에는 장용수, 고초재, 안승삼이 함께 부른 ‘황해도 배치기소리’가 실렸다. 이 노래를 녹음하면서 혈기 왕성했던 자신들의 20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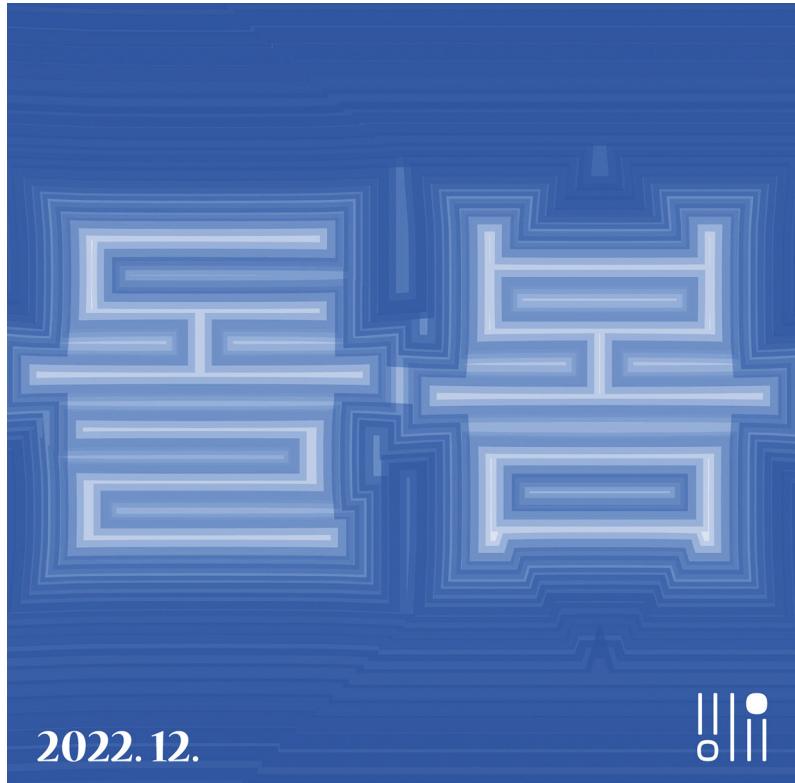
전쟁과 가난으로 어려운 시절에도 탈바가지를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이들. 이런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 이들이 지켰기에 한국 탈춤이 존재한다. 한국 탈춤을 세계 탈춤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21세기의 우리가 20세기의 이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글 윤중강\_국악 평론가 | 사진 제공 윤중강





## 연결돼 있다는 믿음으로



<쓰다> 60호 포스터

지난 리뷰에서 나는 2022년 12월호 비평 특집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썼다. “돌봄노동과 그것이 초래하는 인간의 고통에 관한 진지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여덟 편의 원고를 읽으며 나는 주제를 바라보는 내 상상력이 몹시 작은 주머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돌봄, 노동, 환경’이란 주제를 통해 밀실에 갇혀 있는 두 사람—돌봄노동의 제공자와 돌봄을 받는 사람—만을 생각했던 나와 달리 비평가들의 원고 속에는 다양하고 폭넓은 시각이 펼쳐져 있었다. 그 가운데 인상적이었던 한 편을 소개한다.

최선교 평론가는 인간의 소비에 관한 인상적인 질문으로 글을 시작한다. “인간의 과도한 소비가 타인과 환경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악해서일까?”라는 질문이다.



이 사회가 ‘덜’ 아름다워지는 과정에는 인간이 특별히 나빠서 ‘만’ 발생하는 문제는 없다. 개인과 집단의 도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호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도덕적 수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환경 부문의 문제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 ‘악하다’든지 ‘비인간적’이라는 도덕적 수사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도덕적 수사가 사건을 기술하는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될 경우, 오히려 기업의 구조적 문제가 가려지기 쉽다. 기업의 ‘악한’ 행태를 둘러싼 도덕적 수사들은 산업재해를 종종 온정주의적 문제로 만들어버린다. 온정주의적 맥락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거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가 기업이 특별히 관용을 베푸는 차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 최선교,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중

나쁜 결과가 꼭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범인을 찾는다. 지나치게 익숙해 문제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선과 악을 따지는 일에 열을 올린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진짜’ 문제, 즉 ‘구조적 문제’를 가릴 수 있다고 최선교는 지적한다. 환경오염에 관한 것이든 산업재해에 관한 것이든 우리가 둘러봐 할 세계의 문제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악한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금까지 세계가 더 나쁜 방향으로 발전해 왔듯 누군가는 사람들의 눈을 가릴 것이다. 지금껏 자본주의가 그렇게 훌륭했듯이, 가령 생산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이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취급될 것이고, 기업은 ‘친환경’ 제품을 쏟아내며 소비를 부추길 것이다.

만약 인간의 몸과 사회 시스템을 연결하는 물질적 상호 교환의 감각이 없다면, 노동자 계급의 허파는 그저 허파일 뿐이다. 그러나 상호 연결성의 감각은 눈에 보이는 것(허파)에서 보이지 않는 것(사회적 맥락)을 읽어낼 수 있게 한다. 누군가가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어떤 노동 환경에서, 어떤 식사를 하고, 어떤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등의 정보를 가시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허파 이미지는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정치적 맥락에 관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이 증거가 채택되는 방식은 서론에서 언급한 도덕적 수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타인의 신체가 사회 시스템과 연결됐다는 사실이 가시화될 경우, 그것이 나의 신체와 무관한 맥락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드러난다.

#### 최선교,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중

최선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의 윤리적 행위가 ‘당연한 것’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한다. 판타지 같은 이 문장이 우리 삶에 적용 가능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 그는 스테이시 엘리모 Stacy Alaimo의 ‘노동자 계급의 허파’ 이미지를 제시한다. 노동자의 고통받는 신체는 개인이 감수할 각자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은 시스템이 초래한 결과물이라는 사실. 이처럼 시스템이 개인의 고통과 비극을 낳았다면 이는 같은 구조 아래 연결돼 살아가는 모든 삶과도 필연적으로 연관된다. 결국 상호 연결돼 있다는 이 감각이 ‘윤리적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한 사람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개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두고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 열. Ⅲ

## 리처드 3세가 미국 고등학생이 됐지만 여전히 악인인 이유

국립극장 기획 무장애 공연 <틴에이지 딕>

원작 《리처드 3세》에서 왕위를 친탈한 리처드 글로스터는 <틴에이지 딕>에서 뇌성마비 고등학생으로 변모한다. <틴에이지 딕>은 학생회 서기 리처드가 인기 많은 교내 미식축구팀 쿼터백이자 '일못(일 못하는 사람)' 학생회장 에디를 물리치고 새로운 학생회장이 되기 위한 고군분투를 담은 매운맛 하이틴 연극이다. 리처드는 혼자 있을 때나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모략을 꾸민다. 리처드가 혼자 공상에 빠질 때마다 푸른 조명이 은은하게 깔리는데 원작 대사를 인용하는 등 오래 된 어투를 사용해 그의 음침한 속내를 한층 부각한다. 리처드가 떠나는 회장 자리 찬탈 여정은 멀고도 위험하다. 리처드는 그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자신의 다름을 기꺼이 내주고 배로 갚는다.

리처드의 권력을 향한 욕망과 앤과의 사랑은 긴장감을 유지하며 대립한다. 리처드는 모략의 일환으로 에디의 전 여자친구인 앤에게 접근한다. 이는 댄스파티에 퀸카 앤을 데려가 권력을 얻고자 함이다. 리처드는 연습실에서 앤에게 춤을 배우며 넘어지고, 솔직해지고, 함께 춤추고, 사랑을 확인한다. 앤 역시 리처드에게 투명해지며 에디와 헤어진 비밀 사유를 털어놓는다. 하지만 리처드는 이 비밀을 악용함으로써 결국 앤에게 견딜 수 없는 배신감과 상처를 주었고, 앤은 생을 끝낸다. 소문을 듣고 와글 와글 떠들어대던 익명의 트윗들은 금세 앤을 추모하기 시작한다. 리처드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8톤 트럭처럼 악의 길을 달린다. 유령이 된 앤의 말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종내 그가 달달 외우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반대하는, 아무 생각 없이 잔인한 수단만 사용한 악인 지도자에 종착한다.

이번 공연은 국립극장 기획 무장애 공연이라는 이름으로 기획됐다. 극장에 들어선 뒤 티켓을 받고 프로그램북을 넘기며 좋은 의미로 거듭 경악했다. 첫 번째는 페이지 수가 많은 프로그램북을 무료로 배포했기 때문이다. 보통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북은 유료로 판매한다. 또한 프로그램북의 큰 판형, 큰 글씨, 빼곡한 점자 인쇄는 공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등장인물 수와 수어 통역사의 수가 같았기 때문이다. 언젠가 공연 수어 통역사의 고충을 들은 적이 있다. 이를테면 수어 통역 시 소모되는 체력, 많은 배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어 통역사, 교대할 시간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해 말이다. 수어 통역사는 퍼포머이기도 하지 않은가. 여태껏 본 공연 중 수어 통역사의 수가 제일 많았기에 열두 명의 퍼포머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지 기대하며 막이 오르기를 기다렸다. 공연이 시작되면 등장인물과 같은 디자인의 무채색 옷을 입은 수어 통역사가 인물과 함께한다. 이들은 배우의 말을 통역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배우로 둔갑해 극 안의 군중으로 보이기도 한다. 마이크 루는 희곡 등장인물 소개에서 '리처드'와 '벽' 역을 장애인 배우로 섭외할 것을 힘줘 썼다. 피상적으로 훌러가는 다름을 '공존하는 다름'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무대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점점 낮아지는 경사진 교실 마룻바닥 형태다. 계단이 아닌 경사로 높낮이를 만든 무대는 누구든 그곳을 누릴 수 있음을 전제한다. 리처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무대 안에서 악



(벽)

뭐 그려든가 뭐 나라고 너랑 둘이  
끼리끼리 장애인 커플 하고 싶은 줄 알아



극립극장 기획 무장애 공연 &lt;틴에이지 딕&gt; 현장

인이 된다. 무대 제일 깊은 벽 중앙에는 미닫이문이 있다. 문 위쪽 벽은 자막 해설이 투사되는 스크린으로 사용되고, 양옆 벽에는 등장인물의 심리 혹은 특징을 보여주는 영상이 투사된다. 뒷벽에는 자막이 역동적으로 영사되는데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배우가 발화하는 말보다 자막 영상이 앞서 나와 나의 들을 차례를 빼앗기기도 했다. 배우에게 시선을 고정하려고 애를 써야 비로소 그들의 말과 몸이 표현하는 비를 들을 수 있었다.

세 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의 이번 공연은 리처드의 원톱 연극이다. 긴 시간 동안 리처드는 혼자 키득거리고, 방백으로 관객에게 말을 걸고, 극이 진행될수록 무대를 점점 넓게 사용하고, 학교 곳곳을 자유롭게 누빈다. 그는 음침한 모습, 친숙한 모습, 고민하는 모습, 사랑에 빠진 모습 등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며 입체적 인물로 그려진다. 이는 찰진 개그 소유자인 벽과 전형적 미국 하이틴 영화 남자 주인공 같은 에디, 리처드에게 자신의 오빠를 투영하는 엘리자베스, 보수적 종교관에 따라 살고 싶지만 억눌린 화가 불쑥 튀어나오는 클라리사, 개인의 아픔을 춤으로 이겨내고자 애썼으나 단숨에 이용된 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딱히 성악설을 믿지 않는 나는 희곡 속 대단한 악인을 볼 때면 늘 이해에 실패하고 만다. 이번 역시 완벽한 이해에는 실패했지만 이 해결되지 않은 여백에서 <틴에이지 딕>은 계속 질문한다. 왜 장애인은 애초부터 출마 후보가 아닌 유권자로 상정되는지, 왜 리처드는 이렇게까지 고작 지루한 도시 고등학교의 학생회장일 뿐인 권력에 집착하는지, 왜 돌이킬 수 없는 절대악을 향해 질주하는지. 극 중 리처드는 묻는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지나친 잔인함은 미움을 부른다고 말했는데 만약 태어날 때부터 미움을 받아온 사람이라면 그 잔인함을 멈추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글 이서연\_리뷰 쓰고 싶은 사람이자 종종 사진 찍고 가끔 연극 만드는 시트콤 종독자입니다. 언제나 관객이고 싶습니다. | 사진 제공 국립극장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연극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안무를 어떻게 감각할 것인가

김재리, 문지윤, 황수현과의 대화



김재리, 조형빈(오른쪽)

'안무'는 지금 어떻게 정의되고 있고 정의돼야 할까? 근대적 주체를 세우는 것으로서, 춤을 하나의 예술 장르로 확립하기 위해 '쓰기'의 방법론으로 간주된 안무는 근대성을 표상하는 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안무는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춤을 옮기기 위해, 더 정확하게는 불잡아 두는 것이 불가능한 운동성을 잡아 세우기 위해 고안됐으나 춤의 '수행'이 더는 단일한 주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동시대 예술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안무가가 이 근대적 안무의 개념을 해체하고 확장하고 있다.

만약 안무가 단일한 '쓰인 움직임의 수행' 이상의 다른,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무의 양상은 이것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줌in]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각기 다른 연구자, 창작자의 안무에 대한 글을 이어 쓰기 방식으로싣고, 마지막 12월에는 이들의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아 좌담 형식으로 서로 다른 안무의 개념이 어떻게 중첩되고 틈입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문지윤 큐레이터는 2000년대 이후 안무가 어떻게 현대미술의 생산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의 전시 전략으로 기능하게 됐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시에서 큐레이터일 실천practice이 시공간을 배열하는 것이라면, 안무에도 이와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에 이 두 가지가 서로 교차하면서 서로의 제도에 충격과 균열을 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이와 같은 교차점이 생겨났던 춤-전시 안에서 안무 작업은 전시장이라는 특별한 공간에 들어오면서 블랙박스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퍼포먼스를 발생시켰다. 예측할 수 없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무용수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관객의 네거티브 negative 움직임이, 의도에 의해 생산된 무용수의 포지티브positive 움직임과 상호작용하며 예술적 경험의 폭을 확장하고 전시를 감각적 경험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이다.

이어 김재리 드라마투르그는 안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형식적·미학적 측면에서 나아가 현장과 실천, 행위의 맥락에서 안무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무용이 가지고 있는 '협업collaboration'의 특징이 안무의 구조 안에서 안무가 가진 힘과 책임감을 분산하는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김재리 드라마투르그는 태생적으로 모든 무용 작업이 공동의 협력으로 이뤄지게 마련이지만 작업 결과물의 내부에는 언제나 위계적 구조가 존재해 왔음을 이야기하며, 만약 개별 주체들이 최종 생산물 대신 내적이고 독특한 '우리'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안무를 하나의 사회적 과정으로 바꾸어낼 수 있음을 역설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예술가는 실패 없는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기업화하면서 저작권·소유권 등을 모두 한 명에게 귀속시키는데, 개별 주체들이 모여 이루는 협업은 '저자성authorship' 대신 '우정friendship'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작업 자체를 공동의 집단적 가치를 만드는 생태학적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수현 안무가는 좀 더 실질적 작업, 그래서 안무를 '어떻게' 조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작업을 꾸준히 이어온 작업자로서 황수현 안무가는 스스로 안무의 개념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된 것이 안무와 춤을 비교하면서부터였다고 언급했다. 춤은 무용수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반면, 안무는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었고, 특히 '주는 춤'과 '보는 춤'이 각각 가지는 역할과 양상이 다르므로 '보기'의 측면에서 안무의 잠재성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기'를 수행한 본인의 작업에서 눈물 흘리기를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로서 구현하는 사례를 이야기하며, 이 살아 있는 순간을 구현하고 고민함으로써 춤과 공연이 사회적 실천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안무를 둘러싼 각기 다른 안무의 특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흥미로운 것은 저마다 다른 안무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안무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전시 전략으로서의 안무는 무용수와 관객의 관계성을 고민하고, 협업의 구조 안에서는 우정을 발현시킴으로써 신자유주의 너머의 예술을 고민할 수 있게 한다. 안무는 살아 있는 동사의 순간을 만들기 위한 장치이며 사회적 실천의 장이다. 이 모든 안무의 형상은 지금 동시대적 안무의 개념이 일종의 '운동movement'으로서의 안무가 돼 끊임없이 예술을 재정립하고 확장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글 조형빈 [춤in] 편집위원 | 사진 오창동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2023 January

Mon

Tue

Wed

2

- 공연 <스페란자챔버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 공연 <김정은 바이올린 독주회>
- 전시 <살친구: 버서키와 소환사>(~1. 2)

3

- 공연 <소프라노 이지혜 독주회>
- 공연 <이새롬 클라리넷 독주회>
- 공연 <소프라노 고선영 독창회>
- 연극 <장녀들>(~1. 15)
- 전시 <디자이너 X의 설득>(~1. 3)
- 뮤지컬 <버블S의 컬러 버블쇼>(~1. 29)
- 뮤지컬 <스노우 버블쇼>(~1. 29)

4

- 공연 <이민지 & 이희승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 연극 <거인 앙갈로>(~1. 5)
- 연극 <나사와 시계추>(~1. 15)
- 연극 <행오버>(~1. 31)
- 2023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연극 <늙은 개>(~1. 5)

9

**SFAC 문화예술공간**

- **금천예술공장**
- **대학로극장 퀘드**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 **시민청**
- **신당창작아카이드**
- **연희문화창작촌**
- **예술청 / 대학로센터**
- **청년예술청**
- **SFAC 행사축제**  
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
- 기타 문화행사

10

- 공연 <국립합창단 신년음악회>
- 공연 <정서연 피아노 독주회>
- 공연 <우미혜 피아노 독주회>
- 뮤지컬 <로빈>(~4. 9)

11

- 공연 <성해라 플루트 독주회>
- 공연 <김윤희 바이올린 독주회>
- 연극 <누구와 첫날밤을 보냈을까?>(~1. 15)

16

- 전시 <브라쉬 앤 실루엣>(~1. 16)
- 공연 <김승미 피아노 독주회>
- 공연 <이종은 바이올린 독주회>
- 공연 <제3회 트리오 디어 정기연주회>

17

- 공연 <석유리 오보에 독주회>
- 연극 <부산 갈매기>(~1. 22)
- 공연 <바로크 오케스트라 콘서트>

18

- 공연 <이예림 작곡 리사이틀>
- 공연 <신세계로부터>
- 공연 <주스탕 테일러 하프시코드 독주회>
- 전시 <The Life of Acrobat>(~1. 18)

23

24

- 연극 <두 여자>(~1. 24)
- 연극 <브릴리언트>(~1. 24)
- 뮤지컬 <시크릿쥬쥬 별의여신>(~1. 24)

25

- 전시 <너의 이름을 부를 때>(~1. 25)
- 공연 <김지원 피아노 독주회>
- 공연 <윤지용 오보에 독주회>
- 연극 <무간도, 2인실>(~2. 12)

30

31

- 공연 <김지수 피아노 독주회>
- 뮤지컬 <미드나잇>(~4. 23)

문화  
이벤트

※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은 지원사업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 행사를 폭넓게 홍보하는 공익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신청 및 더 많은 정보 확인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Thu	Fri	Sat	Sun
			1
5	6	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시 &lt;WAGZAK&gt;(~1. 5)</li><li>● 공연 &lt;지브리 신년음악 대축전&gt;</li><li>● 전시 &lt;나의 우주다&gt;(~1. 5)</li><li>● 연극 &lt;이번 여름, 블은 해비라기밭에서&gt; (~1. 8)</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연 &lt;김홍민 헬로 독주회&gt;</li><li>● 공연 &lt;소프라노 손지수 독창회&gt;</li><li>● 공연 &lt;강은실 바이올린 독주회&gt;</li><li>● 연극 &lt;똑, 똑, 똑&gt;(~1. 7)</li><li>● 공연 &lt;국립오페라단 신년음악회&gt;(~1. 7)</li><li>● 연극 &lt;아일랜드&gt;(~1. 22)</li><li>● 연극 &lt;스크루테이프&gt;(~2. 4)</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연 &lt;이미진 피아노 독주회&gt;</li><li>● 연극 &lt;러브레터&gt;</li><li>● 공연 &lt;존노, 고영열 콘서트&gt;</li><li>● 무용 &lt;그루브 앤드&gt;</li><li>● 전시 &lt;온페이퍼&gt;(~1. 7)</li><li>● 2023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연극 &lt;나는 거워&gt;(~1. 8)</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뮤지컬 &lt;청춘소음&gt;(~2. 26)</li><li>● 연극 &lt;이어달리기&gt;(~1. 1)</li><li>● 연극 &lt;거기 서 있는 남자&gt;(~1. 1)</li><li>● 연극 &lt;카사이 주먹&gt;(~1. 1)</li><li>● 연극 &lt;가석방&gt;(~1. 1)</li><li>● 연극 &lt;디 : 데이&gt;(~1. 1)</li><li>● 전시 &lt;HIT AND RUN&gt;(~1. 1)</li></ul>
12	13	1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연 &lt;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콘서트&gt;</li><li>● 공연 &lt;그림 읽어주는 베토벤&gt;(~1. 14)</li><li>● 소리극 &lt;벨벳토끼&gt;(~1. 14)</li><li>● 연극 &lt;라이더&gt;(~1. 19)</li><li>● 뮤지컬 &lt;베토벤&gt;(~3. 26)</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연 &lt;신세련 피아노 독주회&gt;</li><li>● 공연 &lt;최하영 헬로 독주회&gt;</li><li>● 무용 &lt;가을 그리고 다시 봄&gt;</li><li>● 연극 &lt;겨울 배롱나무꽃 피는 날&gt;(~1. 20)</li><li>● 뮤지컬 &lt;드롭스&gt;(~1. 29)</li><li>● 연극 &lt;마우스트랩&gt;(~2. 5)</li><li>● 연극 &lt;히어&gt;(~1. 29)</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시 &lt;분홍 얼굴과 단단한 피부&gt;(~1. 14)</li><li>● 전시 &lt;열 개의 달과 세 개의 터널&gt;(~1. 14)</li><li>● 전시 &lt;구름을 모아서&gt;(~1. 14)</li><li>● 전시 &lt;Waiting room&gt;(~1. 14)</li><li>● 연극 &lt;고래바위에서 기다려&gt;(~1. 14)</li><li>● 뮤지컬 &lt;가루가루 암&gt;(~1. 14)</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극 &lt;그 여자 이야기&gt;(~1. 8)</li><li>● 전시 &lt;눈, 바람, 고요&gt;(~1. 8)</li><li>● 전시 &lt;다시 그린 세계&gt;(~1. 8)</li><li>● 전시 &lt;비빔 그림자&gt;(~1. 8)</li><li>● 공연 &lt;이기석 비올라 독주회&gt;</li><li>● 공연 &lt;CLASSIC DANCE&gt; with Woodie Ensemble</li></ul>
19	20	2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연 &lt;임누리 바이올린 독주회&gt;</li><li>● 전시 &lt;2022 사사로운 영화 리스트&gt;(~1. 19)</li><li>● 공연 &lt;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제175회 정기연주회&gt;</li><li>● 연극 &lt;시발&gt;(~1. 22)</li><li>● 뮤지컬 &lt;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gt;(~3. 1)</li><li>● 전시 &lt;불 피우는 사람들&gt;(~1. 19)</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연 &lt;원민지 헬로 독주회&gt;</li><li>● 공연 &lt;김규현 &amp; 박종해 듀오 리사이틀&gt;</li><li>● 무용 &lt;슈퍼액 씨름대회 출전기&gt;(~1. 24)</li><li>● 무용 &lt;새날&gt;(~1. 24)</li><li>● 전시 &lt;삼세대&gt;(~1. 20)</li><li>● 뮤지컬 &lt;캣츠&gt;(~3. 12)</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극 &lt;독&gt;(~1. 21)</li><li>● 공연 &lt;박윤수 헬로 독주회&gt;</li><li>● 뮤지컬 &lt;한국사 대모험&gt;(~2. 26)</li><li>● 연극 &lt;매직 사이언스 콘서트&gt;(~2. 26)</li><li>● 뮤지컬 &lt;미니특공대 브이레이저스&gt;(~3. 1)</li><li>● 전시 &lt;일시적 개입&gt;(~1. 21)</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극 &lt;광부화가들&gt;(~1. 22)</li></ul>
26	27	2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연 &lt;김은찬 피아노 독주회&gt;</li><li>● 공연 &lt;유재아 플루트 리사이틀&gt;</li><li>● 뮤지컬 &lt;겁쟁이 빌리&gt;(~2. 5)</li><li>● 전시 &lt;바람의 기억&gt;(~1. 26)</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연 &lt;손은정 피아노 독주회&gt;</li><li>● 뮤지컬 &lt;바다탐험대 옥토넛&gt;(~1. 28)</li><li>● 무용 &lt;코리아그라피&gt;(~1. 28)</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뮤지컬 &lt;호두까기 인형&gt;(~1. 29)</li><li>● 연극 &lt;영월행일기&gt;(~2. 5)</li><li>● 연극 &lt;세익스피어 인 러브&gt;(~3. 26)</li><li>● 전시 &lt;대체불가현실&gt;(~1. 28)</li><li>● 전시 &lt;조상의 지혜&gt;(~1. 28)</li><li>● 전시 &lt;회상, 소나무&gt;(~1. 28)</li><li>● 전시 &lt;Rock &amp; Roll&gt;(~1. 28)</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뮤지컬 &lt;피노키오&gt;</li><li>● 무용 &lt;현대의 검은학 접기&gt;</li><li>● 전시 &lt;FEELS&gt;(~1. 29)</li><li>● 전시 &lt;이미지, 상징, 기도&gt;(~1. 29)</li><li>● 전시 &lt;가브리엘&gt;(~1. 29)</li><li>● 전시 &lt;부유하는 빛&gt;(~1. 29)</li><li>● 전시 &lt;오, 수줍음&gt;(~1. 29)</li></ul>



서울문화재단

**2023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늙은 개>**

반려동물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을 느낄 수 있는 그림자극이다. 할머니의 흔적을 따라 누렁 이와 떠나는 여정에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

일시 2023년 1월 4일(수)~1월 5일(목) | 장소 대학로극장 쿼드 | 관람료 3만 5천 원 | 문의 quad.or.kr, 1577-0369



Geum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어린이소리극 <벨벳토끼>**

영미권 고전 동화 마저리 윌리엄스의 *<The Velveteen Rabbit>*을 국내 최초로 공연화한 작품이다. 진짜가 되고 싶었던 벨벳토끼를 통해 특별한 친구와의 우정과 사랑,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다. 판소리, 민요, 연희, 국악기 등 다채로운 전통예술로 표현한 동화 같은 어린이극이다.

일시 2023년 1월 12일(목) 오전 11시, 13일(금) 오전 11시·오후 4시, 14일(토) 오후 11시·오후 2시 | 장소 금나래아트홀 | 관람료 2만 원 | 문의 02-2627-2989



서울문화재단

**2023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나는 거위>**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인 건 아냐!” 청소년이 겪는 부정적 감정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청소년극이다. 부정적 감정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나’에게 ‘거위’가 건네는 다정한 위로.

일시 2023년 1월 7일(목)~1월 8일(금) | 장소 대학로극장 쿼드 | 관람료 3만 5천 원 | 문의 quad.or.kr, 1577-0369



서초문화재단

**스크린 클래식****<2023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 공연 실황**

스크린으로 만나는 세계 최고의 콘서트! 오케스트라 자체의 독립성을 위해 상임 지휘자를 두지 않는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는 오스트리아 지휘자 프란츠 벨저-뫼스트와 함께한다.

일시 2023년 1월 10일(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반포심산아트홀 | 관람료 2만 원 | 문의 02-3477-2805, seochocf.or.kr



Geum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전시 금천아티스트랩 2022 <14인의 목소리>**

‘금천’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과 ‘구로공단’의 지역성을 횡단하는 문화예술 종사자 14인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다. 14인의 목소리가 섞이고 부딪치는 과정을 강은경, 유장우, 조재영 작가가 예술작품으로 재해석했다.

일시 2022년 12월 19일(월)~2023년 1월 14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일요일 휴관) | 장소 금나래갤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627-2989



서초문화재단

**스크린 클래식 <베를린 필하모닉 갈라 프롬 베를린> 공연 실황**

한 해를 마무리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콘서트 ‘갈라 프롬 베를린’이 상임 지휘자 키릴 페트レン코, 스타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과 함께 찾았다.

일시 2023년 1월 12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반포심산아트홀 | 관람료 2만 원 | 문의 02-3477-2805, seochocf.or.kr



## 서초문화재단\*

### 2022 서리풀청년문화기획단 CONCERT

아르코홀릭, 혼타악단, 앙상블음감, 오리엔탈  
르네상스 등 서초구와 서초문화재단이 3년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프로듀싱을 지  
원해 온 팀의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일시 2023년 1월 17일(화), 1월 18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반포심산아트홀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74-2911, seochofc.  
or.kr



### 전시 <디즈니 아트컬렉션>

2022년 연말과 2023년 새해를 기념해 단 한  
번도 선보이지 않았던 홀리데이 시즌 스페셜  
신규 작품과 함께 새로워진 공간 구성으로 진  
행한다. 디즈니, 피사, 마블, 스타워즈 등 모든  
브랜드를 아우르는 MPX GALLERY의 새로워  
진 디즈니 아트컬렉션을 만나보자.

일시 2022년 12월 16일(금)~2023년 1월 15일(일) | 장소 MPX  
GALLERY | 관람료 무료 | 문의 인스타그램 @mpx\_gallery



## 서울예술인회장캠페인

### 공연 <CLASSIC DANCE> with Woody Ensemble

플루트 팽지예, 오보에 안효정, 클라리넷 최정  
현, 바순 김진현, 호른 정준우로 구성된 우디  
앙상블Woody Ensemble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다. ‘클래식 댄스’라는 주제로 버르토크의 루  
마니안 포크댄스, 라벨의 볼레로 등 다채로운  
클래식 춤곡을 준비했다.

일시 2023년 1월 8일(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아람아트홀 | 관  
람료 무료 | 문의 010-7130-4212



### 전시 <로그아웃>

<로그아웃LOGOUT>은 감각을 바탕으로 한 공  
감각 치유 콘셉트의 전시다. 숨 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자그마한 쉼을 선물하고자 기  
획됐다. 현실이라는 불을 잠시 끄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마음속 불을 켜보길 제안  
한다.

일시 2022년 12월 9일(금)~2023년 4월 2일(일) 월~금 오전 11  
시~오후 7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8시 | 장소 뚝섬미술관 | 관람  
료 성인 1만 5천 원, 청소년 1만 2천 원, 어린이 1만 원 | 문의 02-  
555-5035



## 서울예술인회장캠페인

### 연극 <히어HIR>

연극 <히어HIR>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모  
든 일이 매우 현실적임과 동시에 과장된 것처  
럼 보이는 표현으로 유명한 ‘테일러 맥’의 작  
품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70개 이상의  
프로덕션이 제작했으며 호주 시드니 연극상  
중 작품상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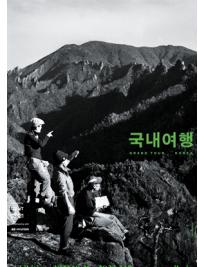
일시 2023년 1월 13일(금)~1월 29일(일) | 장소 더줌아트센터 |  
관람료 6만 6천 원 | 문의 02-790-6792



### 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일시적 개입>

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일시적 개입>은  
고정적 로컬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교차하며 변형, 생성되는 하나의 과정  
으로서 로컬리티를 다시 생각한다. 로컬이 생  
성되고 확산해 가는 여러 가지 양상을 일시적  
인 예술적 관계 맺기를 바탕으로 14팀의 다양  
한 프로젝트를 통해 살펴본다.

일시 2022년 11월 18일(금)~2023년 1월 21일(토) | 장소 아르  
코미술관 제1, 2전시실, 스페이스필릭스 | 관람료 무료 | 문의 02-  
760-4608



### 전시 <국내여행>

기나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 지금, 밖이 아닌 안으로 시선을 돌려 우리나라 고유의 아름다움을 사진을 통해 만끽하는 건 어떨까? 한국의 풍경을 각자의 작품세계로 해석한 예술가의 시선을 빌려 전국의 의미 있는 장소를 만나볼 수 있다.

일시 2022년 10월 21일~2023년 2월 19일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 장소 피크닉 갤러리 | 관람료 성인 1만 8천 원, 청소년/어린이 1만 5천 원 | 문의 02-318-3233



### 계묘년 토끼띠 해 특별전 <새해, 토끼 왔네>

2023년은 계묘년 壬卯年, 토끼의 해로 십이지  
十二支의 하나인 토끼는 우리 민속에서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지닌 동물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는 영민함, 지혜로움, 민첩함 등을 지닌 토끼  
의 외형, 습성 등을 생태와 결합해 전시한다.

일시 2022년 12월 14일~2023년 3월 6일 | 장소 국립민속박물  
관 기획전시실2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704-3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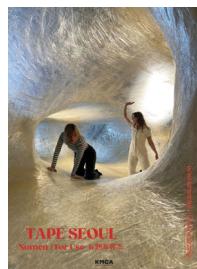


### 박노수미술관 개관 8주년 기념전시

#### <화가의 비방록>

한 시대를 풍미한 화백 박노수와 현 시대 최고의 사진가 조선희의 만남이 돋보이는 전시다. 박노수 화백의 원색적이면서도 맑은 색채가 돋보이는 1980년대 작품과 더불어 사진가 조선희의 시각으로 바라본 가족의 흔적과 기록을 감상할 수 있다.

일시 ~2023년 3월 31(금)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휴관) | 장소 박노수미술관 | 관람료 3천 원 | 문의 02-2148-4171



### 전시 <테이프 서울Tape Seoul>

전시 <테이프 서울Tape Seoul>은 2017년에 이어 5년 만에 국내를 찾은 테이프 시리즈의 연작으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M테이프를 사용해 미술관 공간 안에 대형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다. 전 세계의 도시를 순회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쿄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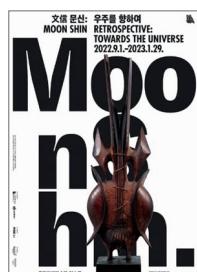
일시 2022년 7월 30일(토)~2023년 1월 29일(일) 오전 10시~오후 7시(※월요일 휴관) | 장소 K현대미술관 | 대상 48개월 이상 | 관람료 성인 1만 3천 원, 청소년 1만 원, 어린이 8천 원 | 문의 02-2138-0952~3, kmcaseoul.org



### 길상 특별전 <그 거울의 행복>

'길상'은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를 의미하는 말로, 좋은 상징을 평상시 주변에 둘 좋은 일을 바라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생활 속에서 바라는 좋은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길상 관련 소장품 십장생도+長生圖等 200여 점을 선보인다.

일시 2022년 11월 16일(수)~2023년 3월 2일(목) |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1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704-3114



### 전시 <문신: 우주를 향하여>

문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회고전이다. 조각가 문신의 예술적 지형을 탐색하고 이방인으로서 그가 지녔던 자유와 고독, 긴장, 다행이 등 시대 관객에게 던지는 자극을 경험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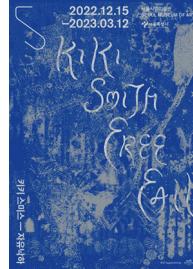
일시 2022년 9월 1일(목)~2023년 1월 29일(일) |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 관람료 2천 원 | 문의 mmca.go.kr



### 전시 <올해의 작가상 10년의 기록>

국내 미술계, 넓게는 우리 사회 안에서 '올해의 작가상'이라는 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대중과 현대미술 사이의 간극과 접점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한다.

일시 2022년 10월 28일(금)~2023년 3월 26일(일) |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관람료 4천 원 | 문의 mmca.or.kr



### 전시 <키키 스미스-자유낙하>

신체에 대한 해체적인 표현으로 1980~90년대 미국 현대미술사에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온 키키 스미스의 아시아 첫 미술관 개인전이다. 여성중심 서사를 넘어 범문화적 초월 서사를 구사하는 작가의 지난 40여 년간의 방대한 작품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일시 2022년 12월 15일(목)~2023년 3월 12일(일) |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 관람료 무료 | 문의 sema.seoul.go.kr



### 2023 서울시향 신년 음악회 <왈츠와 폴카>

독일 출신 지휘자 게리트 프리스니초가 서울시향과 함께 빈풍 왈츠와 폴카 선율로 관객들을 만난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요제프 슈트라우스, 리하르트 호이베르거까지 19세기 오스트리아 작곡가의 춤곡과 오페라 서곡을 연주한다.

일시 2023년 1월 5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관람료 1만 원 | 문의 1588-1210



### 국립오페라단 <신년 음악회: 희망의 소리>

국립오페라단이 계묘년 새해의 문을 여는 신년 음악회를 준비했다. 6일 공연에서는 오페라 합창의 정수로 꼽히는 곡들을 선보인다. 두 번째 공연은 베르디 탄생 210주년을 맞이해 기획한 국립오페라단 2023년 정기공연을 미리 만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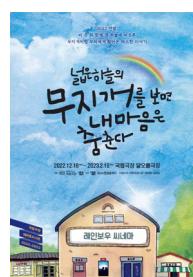
일시 2023년 1월 6일(목)~7일(금) 오후 7시 30분, 1월 8일(토) 오후 3시 |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 문의 1588-2514



### 국립무용단 명절 기획공연 <새날>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선보이는 국립무용단의 풍성한 전통춤 한마당. 한 해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태평무'부터 MZ 선비들이 즐기는 풍류 '산수놀음'까지, 흥겹고 신나는 춤과 다양한 재미를 선사한다.

일시 2023년 1월 20일(금)~1월 24일(화) |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2-2280-4114



### 연극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

2020년 서울연극제 대상 작품으로 교내 따돌림, 부양 문제, 동성애 등 극 중 에피소드를 통해 사회와 개인이 가진 아픔을 직면하고 담담하게 위로한다.

일시 2022년 12월 18일(일)~2023년 2월 19일(일) 화·수·목·금 오후 8시, 토·공휴일 오후 2시 6시·오후 2시 |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관람료 R석 5만 5천 원, S석 3만 3천 원 | 문의 02-2280-4114



### 연극 <광부화가들>

1934년 광부들이 모여 사는 광산촌 애싱턴. 미술 감상 수업을 하러 온 강사 '라이언'은 이론 수업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수강생들에게 직접 그림을 그려볼 것을 제안한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 수업에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광부들의 작업실에 어느 날 미술 수집가인 '헬렌'이 찾아온다. 그는 광부화가 '올리버'에게 애싱턴을 떠나 전업 화가로서의 생활을 권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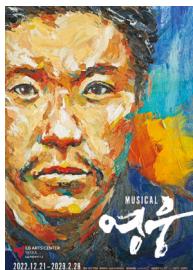
일시 2022년 12월 1일(목)~2023년 1월 22일(일) | 장소 두산아트센터 | 관람료 R석 7만 원, S석 5만 원 | 문의 02-743-0401



### 뮤지컬 <종의 기원>

뮤지컬 <종의 기원>은 소설가 정유정의 『7년의 밤』 『28』을 잇는 '악의 3부작' 중 유일한 1인칭 시점의 살인 이야기다. 가족 여행에서 사고로 아버지와 형을 잃은 후 정신과에서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하게 된 한유진은 주목받는 수영선수로 활약하던 중 경기에 출전했다가 발작을 일으킨다.

일시 2022년 12월 18일(일)~2023년 3월 5일(일) 화~금 오후 8시, 토·일·공휴일 오후 2시·6시(※1월 22일(일) 공연 없음, 1월 23일(월)~24(화) 오후 2시·6시 14:00, 18:00, 월요일 휴관) | 장소 드림아트센터 1관 | 대상 중학생 이상 | 관람료 R석 6만 원, S석 4만 4천 원 | 문의 02-3481-8843



### 뮤지컬 <영웅>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에 완전히 빼앗길 위기에 놓인 1909년. 갓 서른 살의 조선 청년 안중근은 러시아 연해주의 자작나무 숲에서 동지들과 단지斷指 동맹으로 독립운동의 결의를 다진다. 그리고 10월 26일 하얼빈역, 7발의 총성이 울려 퍼진다.

일시 2022년 12월 21일(수)~2023년 2월 28일(화) 화~금 오후 7시 30분, 토·일 오후 2시·6시 30분(※24일(화) 오후 2시·6시 30분, 월요일 휴관) | 장소 LG아트센터 서울 | 대상 8세 이상 | 관람료 VIP석 15만 원, OP석 14만 원, R석 13만 원, S석 10만 원, A석 8만 원, B석 6만 원 | 문의 1577-3363, lgart.com



### 뮤지컬 <빨래>

뮤지컬 <빨래>는 '빨래'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우리의 이야기. 나의 삶과 닮은, 담백하지만 드라마틱한 이야기다. 2005년 초연 이래 1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누적 관객 1백만 명과 함께하며 5천 회 이상의 공연을 기록하며 오랜 시간 다양한 관객의 마음속 얼룩과 먼지를 털어냈다.

일시 2022년 6월 10일(금)~2023년 1월 29일(일) 수~금 오후 7시 30분, 토·일 오후 2시·6시 30분 | 장소 유니플렉스 2관 | 대상 14세 이상 | 관람료 R석 4만 9천 5백 원 | 문의 02-766-2115, uniplex.co.kr



### 뮤지컬 <별을 사랑한 청년 운동주>

만주, 북간도 명동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풍경, 푸른 하늘, 하늘거리는 바람, 그리고 쏟아지는 별빛, 그 서정적 감성을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어린 동주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행복하다.

일시 2022년 12월 1일(목)~2023년 1월 29일(일) 토·일·공휴일 오후 2시 | 장소 경복궁아트홀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2-735-0506



### 뮤지컬 <라면에 파송 중>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한 가정의 가장 다훈. 우연히 보증금 1백만 원과 월세 15만 원에 나온 라면 가게 전단지를 보고 한걸음에 달려가지만 쉬울 줄 알았던 가게 인수는 어렵기만 하다. 그런데 라면 가게 주인 어르신이 좀 이상하다.

일시 ~오픈런 토 오후 3시 | 장소 노원 로즈아트홀 | 대상 만 10세 이상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507-1348-5586

# 모두가 누리다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 11만원

놓치지 말고  
발급·이용하세요!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카드 사용 기간

2023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발급자 자동재충전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19일까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http://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독자 엽서 링크  
[url.kr/wgl4zd](http://url.kr/wgl4zd)

###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북서울시립미술관, 블루스퀘어,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 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장애인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카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종량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 온라인 독자 엽서

심유진 님(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1. [문화+서울]에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번 호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호인 만큼 2022년 연말 결산류의 콘텐츠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후 위기를 특집으로 다뤄 인상적이었습니다.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기후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2022년 한 해 동안 좋은 잡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예술정책이 궁금한데 향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편집 후기

5년 후 (인)질미와 함께 살고 싶다.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나의 반려 업무 문풀과 함께하는 2023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간에 충실한 한 해를 보내보겠습니다. :)

연재인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에쁘게 봐주세요! 출라출라출라~♪ 송지나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올해 첫 문풀을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도 파이팅입니다! 박태준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2023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준걸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다사다난했던 [문화+서울]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을 시작합니다. [문화+서울]을 '반려'하는 2023년 되시기를.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반려 잡지'로 함께하고 있는 [문화+서울]이 올해도 많은 이들의 일상에 용기와 위로로 가닿기를 바랍니다.

장보영 객원 기자

# 2023년 계묘년

서울문화재단은 올 한 해도  
시민 곁에서 예술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본관 |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예술청, 대학로극장 쿼드) | 종로구 동숭길 122 금천예술공장 | 금천구 법안로 15길 57 문래예술공장 영등포구 경인로88길 5-4 서교예술실험센터 | 마포구 진다리로6길 33 삼일로창고극장 | 종구 삼일대로9길 12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광진구 아차산로 710 서울무용센터 | 서대문구 명지2길 14 서울연극센터 | 종로구 대명길 3 서울예술교육센터 | 용산구 서빙고로17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 종로구 대학로12길 31 신당창작아케이드 | 중구 마장로 87 서울중앙시장 시민청 | 중구 세종대로 110 연희문화창작촌 | 서대문구 증가로2길 6-7 청년예술청 | 서대문구 경기대로 26-26



대학로극장 쿼드 제작 공연 <2022 휴이잉>

**테마 토크**

반려 문화생활

**이슈 1**

서울아트책보고

**이슈 2**

서커스 점핑업

**문화인**

첼리스트 홍진호

**1월의 서울문화매뉴얼**

